

■
2018 강원학 연구보고 3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Research on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of
Gangwon Province

최 원 실

발간사

농업유산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 자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농업,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 중심의 정책을 펼쳐온 결과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농업 자원과 농촌 지역만의 가치와 특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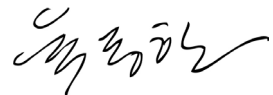
이에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유산을 지정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전통적 농업을 보전하고, 다원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유산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에 잠재되어 있는 혹은 사라져갈 위기에 놓여 있는 농업유산 자원의 발굴과 농업유산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향후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절차를 제시하는데 의미를 가지며, 강원도 농업유산 발굴 및 제도 도입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과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미래 지속가능한 강원도로 발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강원연구원장



목차

요약문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선행연구 검토	3
4. 연구수행체계도	5
II. 농업유산의 개념 및 관련 제도 검토	7
1. 농업유산의 개념 및 특성	7
1.1 농업유산의 개념	7
1.2 농업유산의 특성	10
2. 농업유산 제도 검토	13
2.1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	13
2.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28
2.3 시사점	38
III. 국내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활용 사례	39
1. 전라남도 지정 중요농업유산 제도 사례	39
1.1 제도의 도입 배경	39

1.2 지정 기준 및 현황	40
1.3 신청 및 지정 절차	42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유산 관리 방안	43
2.1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등재 추진 배경 및 과정	43
2.2 농업유산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노력	44
3. 시사점	50
IV.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	51
1.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	51
2. 강원도 농업유산의 기본 방향 및 유형 구분(안)	52
2.1 강원도 농업유산의 기본 방향	52
2.2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유형 구분(안)	53
2.3 강원도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안)	59
3.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 현황	61
V. 강원도 농업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	69
1. 추진 방향	69
1.1 체계적인 농업·농촌 자원의 기초 조사 실시	69
1.2 농업·농촌 자원의 유산화	70
1.3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	71
1.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72
1.5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및 보전·활용	72
2. 추진 절차	73
V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75
1. 요약 및 결론	75
2. 연구의 한계	77

참고문헌	79
부록	81
ABSTRACT	85

표목차

<표 II-1> 농어업유산개념의 구성요소	9
<표 II-2>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유산의 개념	10
<표 II-3> 유산의 지정 대상구분	12
<표 II-4>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의 변화	14
<표 II-5>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현황(2018년 기준)	18
<표 II-6> 중국의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이	22
<표 II-7> 일본의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이	24
<표 II-8>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기준(개정 전)	30
<표 II-9>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2015년 8월 개정 후)	31
<표 II-10>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기준	32
<표 II-11>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주요 사업 내용	34
<표 II-1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2018년 11월 현재)	37
<표 III-1>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40
<표 IV-1> 농촌자산의 개념 및 구성 체계	54
<표 IV-2> 농촌진흥청 농촌다움자원 분류체계	55
<표 IV-3> 농촌 전통경관의 분류	56
<표 IV-4> 농촌 무형유산의 범주 및 분류체계 설정	57
<표 IV-5>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유형 구분(안)	59
<표 IV-6> 강원도 농업유산 지정 기준(안)	61
<표 IV-7> 강원도 지정문화재 중 농업유산 후보 자원(안)	62
<표 IV-8> 농촌진흥청 농촌다움자원 중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안)	63
<표 IV-9> 선행연구의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안)	65
<표 IV-10>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유형 분류(안)	66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수행체계도 5

<그림 II-1> 농어업 유산 개념도 8

<그림 II-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절차 17

<그림 II-3> 사도 섬의 사토야마 농업시스템 모식도 27

<그림 II-4> 사도 섬의 사토야마 농업시스템 및 활용사례 28

<그림 II-5>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절차 33

<그림 II-6> 국가중요농업유산 분포 현황 36

<그림 III-1> 전라남도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현황 41

<그림 III-2> 전라남도지정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체계 42

<그림 III-3> 제주발담 관광기념품 디자인 상품 46

<그림 III-4> 제주 발담길 조성 현황 47

<그림 III-5> 제주 물메 발담길 조성 현황 48

<그림 III-6> 제주 발담 아카데미 교육일정 49

<그림 V-1> 강원도 농업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10년간) 74

요 약 문

농업유산은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전승할 시 다원적 가치의 확산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FAO는 농업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농업시스템을 지정·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촌의 가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급속한 현대화로 농촌지역의 특성이 훼손되고 농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특수한 지리적·환경적인 요인에 적응하며 발전해 온 강원도만의 특성이 반영된 농업자원이 풍부함에도 농업유산의 규제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재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향후 강원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 계승과 정체성 정립을 위해 강원도 차원의 농업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농업유산의 유형을 제시하고,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절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적인 농업·농촌 자원의 기초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 발굴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강원도 내 농업유산 자원이 될 수 있는 농업·농촌 자원을 목록화 및 DB화하여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도내에 소재한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미래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업유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농촌 자원의 유산화를 위한 가치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단계에서 발굴된 농업·농촌 자원에 대해 지정 기준에 따른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계승 가치가 있는 유산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강조되는 농업·농촌 자원의 역사

성과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고유한 농업기술 및 기법,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적인 농업 문화, 농업활동과 관련된 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유산적 가치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통해 강원도 내 중요한 농업유산을 강원도에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전통적 농업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 다원적 가치를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이전 단계에서 제시된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 중 보전 및 계승의 가치가 충분한 자원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강원도 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강원도 차원에서 지정한 농업유산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위제도인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차원에서 지정한 농업유산 자원간의 연계를 통해 규모화하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TF팀 구성 등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될 시 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3년간 총 15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및 지속적인 보전·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등재를 통한 강원 지역의 세계화, 지역 브랜드화 등의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TF팀 구성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농업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즉,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통해 농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농업유산의 세계화, 브랜드화 등 적절한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원도 농업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함으로써 강원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농업은 우리나라가 오천년 이상 지속해 온 핵심 산업이다. 각 지역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 사회나 풍토, 기후 등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이용과 더불어 전통적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농경문화, 경관 등이 존재한다(배민식, 2014).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과 농촌을 도시의 반대 개념으로 여기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특수성과 지역성이 반영되지 않은 개발중심의 정책을 적용하며, 생산성 강화 및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농촌 개발을 추진해온 결과 농업 활동의 축소와 함께 농촌지역이 쇠퇴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과거의 개발 중심의 농정에서 200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농정으로 전환되었다. 농촌의 경쟁력 향상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유발하는 것에서 가능할 수 있다. 농업유산은 환경, 생태,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다원적 가치의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전승할 시 지역의 정체성 구현, 다원적 가치의 확산과 더불어 낙후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농업유산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기반으로 FAO(UN식량농업

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는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를 도입하여 가치 있는 농업시스템을 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계중요농업유산의 하위 제도로서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농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농업의 역사성과 유산적 가치가 풍부함에도 농업유산의 규제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의 부족 등으로 현재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강원도에 잠재되어 있는 농업유산 자원 발굴과 농업유산으로의 지정을 위해서는 보존·규제 중심의 문화재와는 달리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활용이 가능한 농업유산 제도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강원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제도의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내 소재하는 농업유산 자원의 가치 제고 및 미래 세대로의 계승을 위해 농업유산 제도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과 강원도 농업유산의 유형 제시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농업유산 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로 도내 존재하는 농업유산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보전, 계승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의 범위는 농업분야에 한정하여 농업유산에 대해 다룰 것이나 개념 및 특성은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 당시 정립된 개념으로 농업과 어업을 포괄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유산의 개념 및 특성과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강원도 차원에서의 농업유산 자원의 보전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농업유산 발굴과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보전·계승·활용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시 ‘강원도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장에서 수립된 자원의 유형 및 기준을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앞장의 국내외 사례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강원도 농업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농업유산의 개념 및 특성, 농업유산 제도 기준 정립, 후보자원 현황은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이용하고, 국내 사례는 사례지역 방문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농업유산은 2010년대 초 관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농업유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관련연구는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제도 도입 이후 개념 정립 및 유형화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 지역차원에서의 농업유산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자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후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정책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개념 정립 및 유산 제도의 체계가 제시되었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에 따른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과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2).

2013년 제도 도입 이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기초자원 발굴 및 농업유산에 대한 기능, 가치, 유형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욱·장성곤(2016)은 농업유산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에서 국내 농업유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산의 기능적 성격, 유산의 가치 정도, 유산의 구성 체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백승석(2016)은 한국 농어업유산의 지역지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차별화할 수 있는 개념 정립과 보전관리 기능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차원에서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조창완(2014)은 도지정 중요농어업유산을 활용한 농어촌활성화 전략에서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 현황 분석 및 도 지정 중요농어업유산의 유지·보전방안과 농어촌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민수 외(2015)는 전라북도 농업유산 발굴 연구에서 국가농업유산에 지정될 수 있는 전라북도 시군별 농업유산 후보군을 발굴하였으며, 전라북도 농어촌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유학열·김정하(2017)는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충남 농촌 지역 내 존재하는 농업·농촌 자원의 계승을 위해 농업유산 후보자원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강종원·이영길, 2015), 동해시에서 삼화지역 흥월보와 보(洑)민속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준비를 위한 연구와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이창식, 2015; 장정룡, 2015). 그러나 도 차원에서의 농업유산 보전 및 계승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유산 관련 제도 검토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도 농업유산의 보전·계승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강원도 차원에서의 농업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4. 연구수행체계도



<그림 I-1> 연구수행체계도

II. 농업유산의 개념 및 관련 제도 검토

1. 농업유산의 개념 및 특성

1.1 농업유산의 개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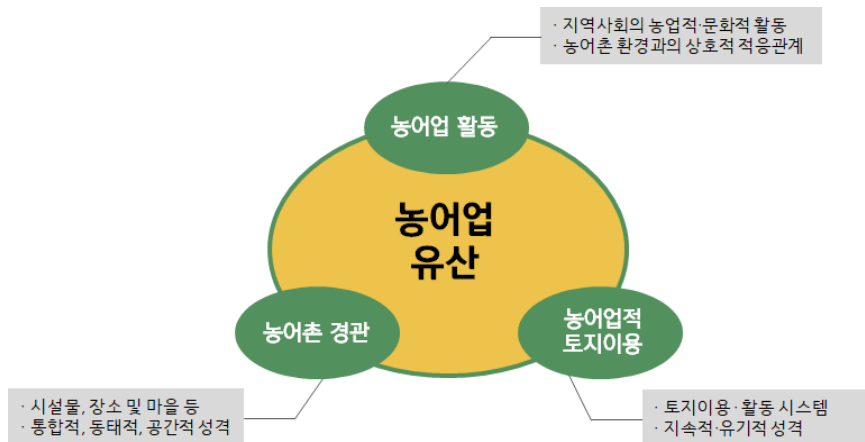
농업유산은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개념이 정립되었다. 농업유산과 관련한 제도는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시행되는 추세이다. 제도에 의해 정립된 농업유산의 개념은 제도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로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에서 제시된 개념의 큰 틀을 따르고 있다.

FAO에 따르면 농업유산은 ‘지역사회와 그 환경이 지속가능한 발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의 상호 적응으로 진화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이용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된다(농촌진흥청, 2013).

1) 농업유산 개념 검토에 앞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및 세계 각국에서의 농업유산은 협의의 농업이 아닌 농업, 어업, 임업 축산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2012년 당시의 농림수산부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이 분리되어 있으나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는 어업유산이 농업유산에 포함되는 것이다.(유원근, 세계중요농업유산과 어업유산, 2018.3.5., 현대해양)

우리나라는 FAO의 농어업유산 개념의 핵심적 요소인 농업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여 농어업유산을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²⁾’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농어업유산은 전통적이며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시스템이 있어야하며, 역사성과 시대적 고유성을 가짐으로써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농어업활동은 수천 년에 걸쳐 조상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 경험의 결정체로서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문화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유원근 외, 2014).



자료 : 유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그림 II-1> 농어업 유산 개념도

농어업유산은 농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농업시스템인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관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 등 두 가지 요소가 복합체로 구성되며(유원근 외, 2014), 소프트웨어적 요소 또는 하드웨어적 요소 단독으로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항

농어업유산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로는 토지, 수자원이용 및 관리 체계, 생태시스템, 공동체의 농업관련지식 및 기술체계, 농업 생활과 관련된 축제, 풍습 등의 문화체계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며, 하드웨어적 요소는 농·임·축산 및 어업 관련 경관, 수자원 경관 등이 해당된다. 농·임·축산 및 어업 관련 경관은 전통적 농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한 다랑이논, 구들장논, 계단식 밭 등이 포함되며, 축산활동은 방목지, 채초지 등, 임업은 생산림 등, 어업은 독살, 염전, 갯벌, 어항 등이 포함된다.

<표 Ⅱ-1> 농어업유산개념의 구성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시스템)	하드웨어적 요소 (경관 및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체계 · 생태시스템 · 축제, 풍습 등 문화 체계 · 공동체 지식 및 기술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임업관련 경관(다랑이논, 경사지밭 등) · 축산관련 경관 · 수자원관련 경관 · 어업관련 경관

자료 : 유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어업유산은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하드웨어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농업시스템만을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현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에 소재하지만 현재 농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당수의 농업 관련 유적들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조건의 제약성은 제도의 유효성은 높일 수 있으나 농촌에 존재하는 유산 자원 중 극히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농어업유산으로는 지정되지 못하였지만 보존되어야 할 유산 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모든 생산 활동과 더불어 일상 생활과 관련한 것을 포함하는 농어촌유산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II-2> 농어업유산과 농어촌유산의 개념

구분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관 및 시설물 (하드웨어적 요소)
농어업 유산	· 경관, 토지, 수자원 관리 특성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 공동체 지식 체계 및 기술, 식량과 생계유지	· 농림어업, 물이용 및 축산활동과 관련된 경관, 시설물, 장소
농어촌 유산	·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삶의 양식 · 고유 부존자원의 활용 및 기술	· 주민의 삶 및 지역 내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적·지역적인 마을공간 및 공 간요소

자료 : 농촌진흥청(2013),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유산」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여 강원도는 도내 유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원들이 보호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유산의 개념을 확장하여 농업유산의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요소의 단독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강원도형 농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1.2 농업유산의 특성

농업유산의 특성은 유산과 관련한 제도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농업유산과 유사한 제도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자연유산·문화유산·복합유산, 일본의 문화적 경관 등이 있다.

유네스코에서 정의에 의하면 자연유산은 ‘①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 과학상 또는 관상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문학적 및 지질학적 생성물과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생물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 특히 일정구역에서 보존상, 미관상,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③ 보존, 자연미, 과학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의미한다. 즉,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의 기념물,

동물 및 생물종의 생식지 또는 자생지, 자연지역 및 자연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대상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만들어진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연유산은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요소인 생물다양성과 연관이 있으나 자연유산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생물다양성을 의미하며, 농업유산은 인간의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토지이용체계 등의 농업시스템 속에서 보존되는 생물다양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화유산은 ‘미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전승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습, 기술, 과학,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등이 모두 그 대상이 된다(Wikipedia).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을 구체적으로 ‘① 예술, 역사,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과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 있는 구조물들로서 미술상, 역사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군, ② 인공의 소산이나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관상상, 역사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 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농업유산의 차이점은 문화유산은 인공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문화적 소산의 결과로서 유적지를 의미하지만, 농업유산은 현재에도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업시스템이 존재하고, 생물다양성이 보존되고 있으며, 식량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원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조건을 적어도 한 가지씩 충족시켜야 한다.

일본의 문화적 경관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지역 사람들의 생활 또는 생업 및 해당 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로 일본 국민의 생활 또는 생업의 이해를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문화재청, 2014). 문화적 경관과 농업유산은 해당 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농업유산은 전통적 방식의 농업생산 활동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반면 문화적 경관은 농업 이외의 산업도 포함하며, 현재 활동이 멈춘 유적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더욱 대상의 범위가 넓다. 또한 일본의 문화적 경관 제도의 경우 문부과학성에서 관리를 주관하므로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부서가 담당하여 관리나 운영상의 불리한 점이

있다.

농업 및 유산과 관련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농업유산만의 특징은 인공의 소산이며,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토지이용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농업유산 제도의 중요한 점은 농촌 지역의 농업시스템과 농업경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인간에 의해 계승되어 왔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다른 유산제도와 상이하다.

<표 II-3> 유산의 지정 대상구분

구분 \ 대상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자연	농업		산업		생활		
		건조물	경관	건조물	경관	건조물	경관	
자연유산	○	-	-	-	-	-	-	-
문화유산	-	○	-	○	-	○	-	-
복합유산	○	○	-	○	-	○	-	-
문화적 경관	△	△	○	△	○	△	○	-
농업유산	△	△	○	-	-	-	-	○ (농업시스템+생물다양성)

주 : 1) 건조물 : 기념물·유적지·건축물, 경관 : 인공건조물 및 자연의 복합체

2) ○ : 주 대상으로 지정됨, △ : 주 대상의 구성요소로 포함됨

자료 : 유원근 외(2014), 「농업유산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또한 과거 유산제도가 원형보존을 중시하는 반면, 농업유산은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보존과 더불어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농업유산을 문화재로서 인식하여 보존의 대상으로만 여겼으나 농업유산제도 도입 이후 농업유산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 농업유산 제도 검토

2.1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

2.1.1 개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은 세계적으로 가족농업과 전통 농업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의 일환으로 유엔 농업식량기구(FAO)에 의해 제안되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농업유산을 토지, 문화, 농업 경관, 생물다양성 등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연관된 인간 공동체의 살아있는 진화 시스템으로 보고 있으며, 수세기동안 유지해온 농업시스템과 자원을 보전·활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즉, 이 제도의 목적은 ‘식량 안보’, ‘생물다양성’, ‘전통 농업 지식 및 기술’, ‘경관’, ‘농업 문화’ 등 5가지 요소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농업시스템을 파악하고 후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다.

2.1.2 등재 기준³⁾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FAO는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연관성을 갖춘 농업시스템의 전반적인 가치를 인류유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 등재 기준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상품, 서비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들은 시스템의 요소 간에 존재하는 연계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등재 기준은 제도 설립 이래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2년 10월 이전의 등재 기준은 농업시스템의 고유특성, 정황성 및 프로젝트 수행성이라는 3개의 대분류와 그에 대한 각각의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고유특성 내에는 세계적 중요성, 현저한 특징, 지속성의 역사 등 농업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3) FAO 한국협회(2018), 세계농업유산 가이드북을 기초로 작성

생물다양성 및 생태시스템, 경관, 토지, 수자원 관리, 식량안보 및 생계유지, 사회조직과 문화, 지식체계 및 농업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정확성과 프로젝트 수행성 내에 제도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다.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을 5가지로 간략하게 개편하여 제시하였으나 대체로 기존 ‘시스템의 고유특성’에 포함된 내용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래 <표 II-4>와 같이 2017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등재 기준이 변화하였으며, 기존보다 농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II-4>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의 변화

2017년 상반기 이전	2017년 상반기 이후	변화 유무
식량 안보 및 생계 보장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식량 안보 및 생계 보장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X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 유지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	농업생물다양성 (Agro-biodiversity)	○
지식체계와 적응된 기술 (Knowledge system and adapted technologies)	현지 및 전통적 지식체계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	○
문화, 가치 체계 및 사회조직 (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문화, 가치시스템, 사회조직 (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X
경관, 토지 및 수자원 관리 특성 (Remarkable landscapes,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features)	경관과 해양경관의 특성 (Landscapes and Seascapes Features)	○

자료 : www.fao.org/giahs ; 유학열 외(2017),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 참고

현재(2018년 기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은 ‘식량 안보 및 생계 보장’, ‘농업생물다양성’, ‘지역 및 전통 지식 시스템’, ‘문화, 가치시스템, 사회 단체’, ‘경관과 해양경관의 특성’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량 안보 및 생계 보장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농업시스템은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식량과 생계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공급과 교류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농업과 소규모 농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경제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유형의 농업이 포함된다. 즉, 전통적 농업 활동과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계에 주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농업생물다양성

FAO에 의하면 농업생물다양성은 농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생물다양성을 의미하며, 고유종, 희귀종, 멸종위기종 등 유전 자원의 다양성과 식량, 사료, 섬유, 연료, 의약품 등으로 활용되는 종 다양성, 농업, 축산, 산림, 수산 등과 같은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한다. 농업시스템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현지 및 전통적 지식 체계

농업시스템은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식 및 고유한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생물, 토지, 수자원 등 자연자원의 관리시스템과 농업적 생태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자원이용 및 이익의 분배를 위한 규약 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유원근 외, 2014). 현지 및 전통적 지식 체계는 농업, 임업 또는 어업 활동에 필요한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지식과 관행, 농업기술, 독창적인 적응 기술, 생물군, 토지, 수자원 등을 포함한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4) 문화, 가치시스템, 사회조직

세계중요농업유산 후보지는 문화적 정체성과 장소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원 관리 및 식량 생산과 관련된 사회조직⁴⁾, 가치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관행들은 자연자원

4) FAO는 사회 조직을 농업 시스템의 조직과 동적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 가족, 집단 또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의 보존을 보장하고 이들의 이용과 접근성에 대한 공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한 사회조직 및 관행들은 관습법·관행 뿐 아니라 의식적, 종교적 또는 영적 경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5) 경관과 해양 경관의 특징

세계중요농업유산 입후보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이후 안정화되었거나, 매우 천천히 진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관 또는 해양 경관을 대표해야 한다. 그들의 형태와 모습 및 상호연계성은 장기적인 역사적 지속성과 더불어 현지 사회경제적 시스템과의 강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상태 또는 느린 진화는 해당 장소나 지역에서 식량생산·환경·문화가 통합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토지 집합체(land use mosaic), 수자원 또는 해안관리시스템 등 복잡한 토지이용시스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랑이 논, 수자원 및 연안관리 시스템 등의 토지이용시스템의 형태가 있다.

입후보지는 위의 5가지 등재 기준과 더불어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동적 보존을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행동계획에는 위협 및 도전과제에 대한 분석, 동적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전략·행동 및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다양한 지리적, 기후적, 사회경제학적 조건에서 형성 및 발전된 후보지 특유의 다양한 특색을 고려하여 검토하게 된다. 세부적인 행동 계획 포함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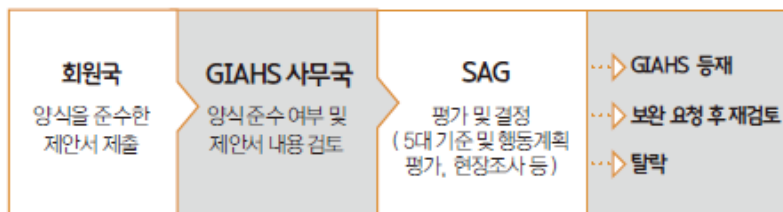
- 시스템의 존속, 지속가능성, 생존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압력과 환경적 변화를 비롯하여 시스템과 관련된 위협 및 도전과제의 식별 및 분석
- 제안된 정책·전략·행동에 대한 설명 및 언급된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
- 입후보지의 동적 보존에 있어 상기 정책, 전략, 행동의 기여 방안
- 현지·국가·국제적 차원에서의 행동계획 실천에 있어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지원 방안

- 상기 정책·전략·행동이 현지·국가·국제차원에서의 기금 및 자원 조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술
- 행동계획의 이행에 있어 진전 성과와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2.1.3 등재 절차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유산 후보지를 각 국에서 파악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후 사무국은 제안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에 제안서 수정을 요청한다. 이때에는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시킨 제안서를 과학위원회(SAG, Scientific Advisory Group)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된다.

이후에 과학위원회 소속 전문가의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며, 현장실사시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위원회내에서 농업유산 후보지의 등재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과학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된다(FAO 한국협회, 2016.3)



자료 : FAO 한국협회(2018), 「세계농업유산 가이드북」

<그림 II-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절차

2.1.4 등재 현황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농업시스템은 2018년 기준 21개 국가의 총 52개소이다. 2005년 중국 용현마을의 벼논양어 농업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각국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등재 현황을 보면 중국이 15개소로 가장 많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이 11개소의 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에 이어 우리나라도 청산 구들장 논, 제주도 밭담 농업시스템, 하동 전통 차 농업시스템, 금산 전통 인삼 농업시스템 등 4개소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처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5>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현황(2018년 기준)

국가	등재명	등재년도
케냐	올도니오노키와 올케리 마사이 목축민 유산 (Oldonyonokie/Olkeri Maasai Pastoralist Heritage)	2011
탄자니아 (2)	엔가레세로 마사이 목축민유산지역 (Engaresero Maasai Pastoralist Heritage Area)	2011
	키함바 혼농임업 시스템 (Shimbwe Juu Kihamba Agro-forestry Heritage Site)	2011
알제리	가웃 시스템(Ghout System)	2011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 오아시스 시스템(Oases System in Atlas Mountains)	2011
튀니지	가프사 오아시스(Gafsa Oases)	2011
이집트	시와 오아시스(Siwa Oasis)	2016
칠레	칠로에 농업(Chiloe Agriculture)	2011
페루	안데스 농업(Andean Agriculture)	2011
멕시코	치남파 시스템(Chinampa System)	2017
스페인(2)	발에 살라도 데 아나나 농업시스템 (The Agricultural System of Valle Salado de Anana)	2017
	악사르키아의 말라가 건포도 생산 시스템 (Malaga Raisin Production System in La Axarquia)	2017
포르투갈	바로소 혼농임목축업 시스템 (Varroso Agro-Sylvo-Pastoral System)	2018

국가	등재명	등재년도
이탈리아	아시시/스쁠레또의 경사지 올리브 과수원 (Olive Groves of the Slopes between Assisi and Spoleto)	2018
이란	카나트 관개 시스템 (Qanat Irrigated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Kashan)	2014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리와 역사적인 대추야자 오아시스 (Al Ain and Liwa Historical Date Palm Oases)	2015
방글라데시	수상 정원 농업 실천(Floating Garden Agricultural Practices)	2015
인도(3)	카슈미르의 샤프론 유산(Saffron Heritage of Kashmir)	2011
	코라푸트의 전통적인 농업(Koraput Traditional Agriculture)	2012
	쿠타나드의 저해발 농업시스템 (Kuttanad Below Sea Level Farming System)	2013
스리랑카	건조지대의 폭포식 탱크 마을 시스템 (The Cascaded Tank-Village System(CTVS) in the Dry Zone of Sri Lanka)	2017
필리핀	이푸가오 계단식 논(Ifugao Rice Terraces)	2011
중국(15)	용현마을의 벼논양어 문화(Rice Fish Culture)	2005
	강서성 만년현의 전통 쌀 재배(Wannian Traditional Rice Culture)	2010
	하니 계단식 논(Hani Rice Terraces)	2010
	동족의 벼·물고기·오리 공생시스템(Dong's Rice Fish Duck System)	2011
	푸얼 전통 차 농업시스템(Pu'er Traditional Tea Agrosystem)	2012
	아오한 건지 농업시스템(Aohan Dryland Farming System)	2012
	회계산 고대 비자나무(Kuajishan Ancient Chinese Torreya)	2013
	도시농업 유산-선화의 포도 정원 (Urban Agricultural Heritage - Xuanhua Grape Garden)	2013
	자현 전통 대추 정원(Jiaxian Traditional Chinese Date Gardens)	2014
	홍화 타전 농업시스템(Xinghua Duotian Agrosystem)	2014
	복주시 자스민 및 차 재배 시스템(Fuzhou Jasmine and Tea Culture System)	2014
	절강 뽕나무둑·양어 시스템(Huzhou Mulberry-dyke and Fish Pond System)	2017
	질부 자가나호우산 농업·임업·축산업 시스템 (Diebu Zhagana Agriculture-Forestry-Animal Husbandry Composite System)	2017
	샤진 황하강변의 뽕나무 과수원 시스템 (Xiajin Yellow River Old Course Ancient Mulberry Grove System)	2018
	남부 산악지대 계단식 논 (Rice Terraces System in Southern Mountainous and Hilly Areas)	2018

국가	등재명	등재년도
일본(11)	노토의 사토야마와 사토우미(Noto's Satoyama and Satoumi)	2011
	따오기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도섬 사토야마 (Sado'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2011
	시즈오카의 전통적인 차밭-목초지 통합 시스템 (Traditional Tea-grass Integrated System in Shizuoka)	201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아소 초원 관리 (Managing Aso Grassland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2013
	쿠나사키 반도 우사 농업·임업·어업 통합시스템 (Kunisaki Peninsula Usa Integrated Forestry, Agriculture and Fisheries System)	2013
	나가라 강 시스템의 아유(Ayu of the Nagara River System)	2015
	미나베-타나베 우메 시스템(Minabe- Tanabe Ume System)	2015
	다카치호고-시바이야마 산악지대 농림업시스템(Takachihogo-Shiibayama Mountainous Agriculture and Forestry System)	2015
	오사키 코도의 지속가능한 논 농업을 위한 물관리 시스템 (Osaki Kodo's Traditional Water Man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Paddy Agriculture)	2017
	니시-아와 경사지 농업시스템(Nishi-Awa Steep Slope Land Agriculture System)	2018
	시즈오카의 전통적인 고추냉이 재배(Traditioanl Wasabi Cultivation in Shizuoka)	2018
대한민국(4)	청산도 구들장 논(Traditional Gudeuljang Irrigated Rice Terraces in Cheongsando)	2014
	제주도 발달 농업시스템(Jeju Batdam Agricultural System)	2014
	하동 전통 차 농업시스템(Traditional Hadong Tea Agrosystem in Hwagae-myeon)	2017
	금산 전통 인삼 농업시스템(Geumsan Traditional Ginseng Agricultural System, Republic of Korea)	2018

자료 : 선우윤정(2018), “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10), 세계농업; FAO 한국협회(2018), 「세계농업유산 가이드북」

2.1.5 중국의 세계농업유산 추진 사례⁵⁾

1) 개요

중국은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시기부터 자국내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2003년부터 중국 과학연구소(IGSNRR)를 중심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안서를 개발 및 신청한 결과 2005년 6월 중국 용현마을의 벼논양어 농업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소가 등재되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전통적 농업시스템 발굴 및 보존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예비 체계로서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China-NIAHS)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는 중국농업부가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국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의 지정 절차는 농업부가 지방정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받아 후보지 목록을 작성하고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체계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중국의 GIAHS 사무소가 중국 농업부에 세계중요농업유산 후보지를 선별하여 제시하면 이를 농업부가 검토한 후 FAO에 등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 이후 중국 농업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농업시스템을 대상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침을 공표하는 등 선정 절차를 표준화하였다(선우윤정, 2018).

중국 국가중요농업제도(NIAHS)의 지정 기준은 개념과 특성, 기본적인 기준, 보완적인 기준으로 구분되며(강승진, 2013), 세계중요농업유산 목표와 유사하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적응성, 역사성,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두고 있다.

<p><중국의 국가중요농업제도(NIAHS)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 적응성, 온전함, 다중기능성, 전략적 중요성, 위협요인 ○ 기본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지속가능성, 역사성(100년 이상), 위협요인 ○ 보완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관리
--

5) 강승진(2013), 중국·일본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록 사례와 제주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재작성하였음

중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은 2013년에 최초로 19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14년 20개소, 2015년 23개소, 2017년 29개소가 지정되어 총 91개소가 지정·관리 중에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지정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 지정하고 있다.

<표 II-6> 중국의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이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GIAHS	1	2	1	2	2	3	0	0	2	2	15
NIAHS	-	-	-	-	19	20	23	0	29	0	91

자료 : Akira Nagata(2018.9.15.),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in China, Japan and Korea, 농업유산의 다원적 가치 활용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농촌진흥청

2) 중국 용현 마을의 벼논양어 시스템⁶⁾

중국 절강성 청전(靑田, Qing Tian)현에 위치한 용현 마을의 벼논양어 문화는 농업유산의 동적 보존을 위한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6개 시범국가에서 추진된 세계중요농업유산 시범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2005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 벼논양어 시스템은 “중국 벼논양어시스템 보존 및 적응”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로 중국 농업부, 중국농업과학원(CAS), 청전현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용현 마을의 면적은 460ha에 이르며, 이 중 60ha에서 벼논양어가 실시되고 있다. 용현마을의 주요 농수산물은 쌀, 어류 및 차 등이다. 비록 1인당 경지면적이 0.44ha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은 각자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어류를 기르고 있다. 농업 이외 석조(stone carving), 관광 등 비농업 활동도 마을농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벼논양어 시스템은 땅을 파서 만든 연못에 2,000마리의 잉어 치어를 넣어 알을 생산하고, 시장에 팔며, 남는 치어를 자신의 논에 방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논에 방류된 치어는 연못에서 자란 치어에 비해 잘 자랐으며, 이러한 관행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것이 중국 벼논양어의 시초인 것으로 추정된다.

벼논양어 문화는 명나라 홍무제 시대 (1368~98)의 기록에 따르면 청전현의 논에 양어 되는 어류는 빨간색, 검정색 또는 여러 색을 띠었으며, 논 이외 제방연못에서도 길러졌

6) FAO(2018), 세계중요농업유산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재작성 하였음

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벼논양어 문화가 형성되어 농업 지식·도구 뿐만 아니라 지역관습, 축제, 음식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벼논양어 시스템은 쌀 생산과 양어를 통한 식량안보, 어류 소비와 판매를 통한 영양 개선 및 소득창출, 어류의 모기 퇴치를 활용한 말라리아 예방, 농약사용 감축을 통한 쌀, 어류 및 관련 종의 생물다양성 보존, 병해충 규제, 토양 및 물 보존·복원 등의 전통적 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류는 벼의 수분(受粉)을 도와주며, 식물잔재를 감소시키고 작물에 영양을 공급해주기도 한다. 반면에 벼는 어류를 위한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의 주요 농업생물다양성은 20개의 전통 벼 품종, 텃밭을 위한 식물종, 산림종, 가축·가금류 품종, 가지, 타로, 매실, 연근 등 중국의 다양한 전통 채소와 과일, 그리고 6개 토종잉어 품종 등이 있다. 그 외의 관련 생물다양성으로는 5개 야생어류 품종, 양서류, 달팽이, 7개 야생채소 품종, 62개 산림 품종, 53개 약용식물, 야생고양이와 뱀 등이 서식하고 있다.

중국의 벼논양어도 위협 요인이 존재한다. 벼논양어의 면적이 1959년도 66만 7,000ha에서 1986년도 98만 5,000ha, 2000년도 153만 2,000ha까지 증대되었으나, 2002년 148만ha로 감소했다. 벼논양어 시스템은 각각 농약과 항생제 등 화학물에 의존하는 고생산성의 독립적인 쌀 생산 및 집약적인 양어 시스템의 확대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일 쌀 생산 벼논양어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전통 경작·영농 기법 포기, 집약농업, 낮은 인식수준, 제도적 역량부족으로 인한 원시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전적 침식과 전통 농업시스템 및 관련 야생종 손실 등에 대한 위협 요인이 발생되었다.

2.1.6 일본의 세계농업유산

1) 개요

일본은 2009년부터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인 사토야마(里山)를 중심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사토야마란 산기슭과 경작 가능한 평지 사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세기에 걸쳐 소규모 농업 및 임업을 통해 발전되었다(Wikipedia).

그 당시 농림수산성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담당부서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유엔대학(UNU)의 전문가그룹 등의 학계전문가와 지방 정부 정책 담당자의 협력으로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처음으로 니가타현 이시카와현의 ‘노토의 사토야마와 사토우미’와 사도섬의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의 사토야마’ 등 2개소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3년에 3개소, 2015년에 3개소가 각각 등재되었다.

또한 일본은 2016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Japan-NIAHS)을 도입하여 2017년 8개의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지정된 농업유산의 보전과 더불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지원하여 2018년 기준 총 11개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였으며,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표 II-7> 일본의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GIAHS	2	0	3	0	3	0	1	2	11
NIAHS	-	-	-	-	-	-	8	0	8

자료 : Akira Nagata(2018.9.15.),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in China, Japan and Korea, 농업유산의 다원적 가치 활용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농촌진흥청

일본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도입 이전에는 학계 전문가 및 지방 정부 정책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농업유산 후보지를 발굴하고 FAO에 등재 신청을 해왔다. 2013년도 이전에 등재된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업인 및 관련단체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관련 사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등재지역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활성화하고자 2013년 11월 “세계농업유산국내인정지역연휴회의”, 2014년 8월 “세계농업유산광역연휴추진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부기관인 농림수산성에 재정적 지원 및 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 2016년 일본 농업유산제도가 설립될 수 있었다(배민식, 2014).

일본에서는 농업유산을 ‘사회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되어 온 전통적인 농림 수산업과 그에 관련된 길러진 문화, 경관, 생물 다양성 등이 일체가 된

농림 산업 시스템 중 세계와 일본의 중요성 및 역사 및 현대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농림수산업 장관이 인정한 것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등재기준은 식량 및 생계보장, 농업 생물 다양성, 지역의 전통지식 시스템, 문화, 가치관 및 사회단체, 경관 및 해안 경관의 특징, 변화에 대한 회복력, 다양한 주체의 참여, 6차 산업화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중요 농업유산 등재 기준과 유사하다.

<일본의 국가중요농업제도(NIAHS) 기준>

- 식량 및 생계 보장
 - 신청하는 농림수산업 시스템은 지역 사회의 식량 및 생계 보장에 기여할 것
- 농업 생물 다양성
 - 신청하는 농림수산업 시스템은 식량과 농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 및 유전 자원이 풍부할 것
- 지역의 전통 지식 시스템
 - 지역의 전통 지식 체계가 “지역의 귀중한 전통 지식 및 관습”, “독창적인 적응 기술 및 생물상, 토지, 물 등의 농림 산업을 지탱하는 천연 자원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
- 문화, 가치관 및 사회 단체
 - 신청하는 농림수산업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적 정체성과 풍토가 지역에 정착 귀속하고 있을 것
- 경관 및 해안 경관 특징
 - 인류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긴 세월에 걸쳐 발전해 온 경관 및 해안 경관을 가지고 있을 것
- 변화에 대한 회복력
 - 자연 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많은 농림수산업 시스템이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 재해에 견딜 변화에 대응해 왔음. 농림수산업 시스템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계승하기 위한 재해 등에 대한 높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다양한 주체의 참여
 - 담당자의 감소와 사회적 변화에 대해 전통적인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문화와 생태계 보전 시스템의 유지·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참가에 의한 새로운 구조에 의해 농림수 산업 시스템을 계승하고 있는 것
- 6차 산업화 추진
 - 농림 수산업 시스템이 갖는 역사적 가치, 농림 수산물, 전통 문화, 풍경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관광 진흥 등 지역 모두 6차 산업화 등의 추진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농림 산업 시스템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

2) 일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아소 초원 관리⁷⁾

일본 큐슈에 위치한 아소의 초원은 쿠마모토현의 활화산인 아소산의 중앙 화구 언덕과 칼데라 주변에 퍼져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아소지역은 지형학적 특성상 화산회토에서 농업 활동이 어렵지만, 현지 주민들은 몇 세대에 이어 고랭지 지역의 화산성 토양을 논·밭으로 개량하고, 목축지로 이용해 왔다. 그 결과 아소 지역에서는 쌀 농업, 채소원예, 온실원예, 축산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화전·방목·채초를 계속해오며, 이러한 농업 활동에 의해 광대한 초원이 생겨났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희귀 초원성 동식물이 생육·서식하고 있으며, 초원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시스템과 농촌 문화를 계승하면서 독특한 생물다양성 및 농촌 경관이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아소지역의 초원은 주로 가축 사료를 위한 목초지, 녹비, 지붕 제작을 위한 재료 또는 원료 등으로 활용되며 아소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순환하는 농업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내 대부분의 초지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이 공동 토지(common lands)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협동조합 회원이나 해당 초지의 공동 사용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한해서 초지에서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임업 생산물을 재배·활용할 수 있다.

아소 지역의 초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유지되어 왔으며, 각 지역사회마다 자원 활용에 대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초지 사용 관련 규범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초지 사용 규범을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속가능한 초지 활용과 구성원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아소 초원은 세계중요농업유산 이후 친환경 이미지가 구축되어 니싼 자동차회사에서 아소지역 7개시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3)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의 사토야마⁸⁾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의 사토야마'는 2011년 6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도의 사토야마는 논에서 먹이를 얻고 거목에 둥지를

7) FAO 한국협회(2018), 「세계농업유산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5),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백서」

8) 배민식(2014),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트는 문화적 가치가 큰 일본 야생 따오기의 유일한 서식지이며, 2008년부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따오기와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朱鷺暮郷)’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섬 전체에 친환경 논농업을 확대하였다. 사도의 전통적인 농업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 및 홍보를 통해 전통관행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따오기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는 등 서식 환경의 개선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할 수 있었다.

‘따오기와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인증 제도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줄이고, 생물을 키우고 있으며, 논밭 가장자리의 배수로를 깊게 파서 물이 고여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수로는 각종 수생생물의 생태서식공간이 된다. 따오기는 이곳에서 먹이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겨울에도 논에 물을 채워 두며, 물이 채워진 논에는 따오기의 먹이가 되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파리 유충이 서식하면서 잡초 종자를 제거한다.

이 방식으로 재배한 쌀을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 사도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사도의 농업적 환경과 경관을 지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 2회 지정된 날짜에 논 농가가 직접 주변 생태계 상황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조사는 초등학교 대상의 ‘사도 Kids 생물 조사대’ 및 일반인 대상의 ‘사도시민환경대학’ 등과 같은 프로젝트로 활용하고 있다.

인증 받은 쌀은 사도시가 인정하는 ‘따오기와 함께 사는 고향 만들기 인증미(朱鷺暮郷認證米)’라는 마크를 붙여 판매되며, 지역 농민들의 참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사도에서 생산된 코시히까리쌀의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가격 상승 및 농가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자료 : UNU(2018); 선우윤정(2018), “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10), 세계농업

<그림 II-3> 사도 섬의 사토야마 농업시스템 모식도



자료 : 사토야마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그림 II-4> 사도 섬의 사토야마 농업시스템 및 활용사례

2.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⁹⁾

2.2.1 개요

우리나라는 FAO의 세계농업유산제도가 추진됨에 따라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업 자원의 보전, 생물다양성 및 전통유산의 품격 향상과 이를 지역

9)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6),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기법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의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가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조에 의하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인 농업유산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2011년 7월 ‘제6차 농촌지역정책 전문가포럼’에서 농어업유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9월 농업유산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12년 3월 농어업유산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고시한 「농어업유산지정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2013년 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청산도 구들장논), 2호(제주 돌담밭)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개소가 지정되었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관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농촌의 문화역사 및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령과 함께 201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고시한 「농어업유산지정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이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대상과 절차 등을 포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농업유산의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하였다. 또한 2012년 도입 당시에는 어업유산까지 포함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로도 도입되었으나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어업유산은 해양수산부 관할로 이관되었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절차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또한 「농업유산 지정 관리기준」으로 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2.2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농업활동과 관련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진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유형적인 것은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가공시설·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생물다양성’을 말하며, 무형적인 것은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전통지식·농업문화·사회조직’ 의미한다.

2015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과 유사하게 개정되어 농업자원의 가치성 기준 6개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 전과의 큰 차이점은 기존 100년 이상의 역사성, 지역의 대표성 등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진 점이다.

<표 II-8>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개정 전)

구분	항목	내용
유산의 가치성	역사성	· 100년 이상 전부터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경관(어메니티)이 수려하여 관광·휴양·상품성이 있을 것
	특징	·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해당되는 1~2항목)에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 - 공동체의 농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 토지·수자원이용 형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파트너십	협력도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사업비 분담 등의 유지 관리계획이 있을 것
	참여도	·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가 있을 것
효과성	브랜드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자료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2-285호)

<표 Ⅱ-9>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2015년 8월 개정 후)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①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②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③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④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⑤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⑥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자료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2015년 관련법이 개정되며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지정기준이 신설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식량생산, 생물다양성, 지식체계, 전통문화, 경관형성 등 어업유산의 특징과 60년 이상 존속하는 등의 역사성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식도, 지속가능성, 가치제고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지역성으로 구분된다. 어업유산의 경우 60년 이상 존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세부기준이 존재하며, 특히 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지자체의 지원이나 조례 제정 여부가 지정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지정관련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10>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기준

구분	항목	내용
어업 유산의 특징	식량 생산	· 식량 생산 및 주민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 정도 · 식량자원으로서 어산물의 활용 정도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보존·증진
	지식체계	· 어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 · 어업유산의 보호·보전을 위한 관리기술 보유
	전통문화	· 어업유산 관련 문화·의식 형성 · 세대를 잇는 어업유산 활용기술의 전수
	경관형성	· 아름답거나 현저한 경관 형성 ·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어업유산의 조화
역사성		· 60년 이상 경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역사성 보유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 보유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정책	· 지방자치단체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등 정책적 지원 · 어업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 등
	인식도	· 지역주민 지닌 어업유산에 대한 인식도, 자부심 및 자긍심 등
	지속가능	· 향후 어업활동으로서의 활용가능성 · 어업 외 지역활성화 요소로 활용가능성
	가치제고	· 어업유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계획의 타당성여부

자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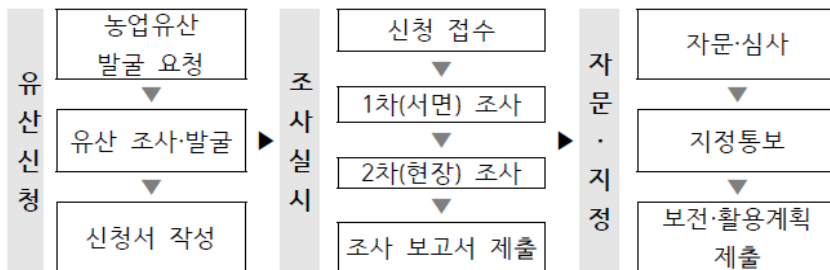
2.2.3 지정 절차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은 농업유산자문위원회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은 지정 받고자 하는 지자체가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와 면적,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한 상세 지형도면이 포함된 신청서와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 동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는 「농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1/2 이상 또는 주민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의 2/3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주민협의체는 「농업유산 관리기준」 제5조에 의거하여 농업유산의 소유자와 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농업자원의 설명서에는 역사성, 특징, 현대적 의미, 위협요인과 도전과제, 보전관리를 위한 노력, 국가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 사회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을 기술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필요 사항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과 매우 유사하다.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자료를 기초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최종 심사를 통해 지정이 결정된다. 이 때 자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6),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기법 개발 연구」

<그림 II-5>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절차

2.2.4 지정 후 지원 정책¹⁰⁾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유산제도와 연계된 사업인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사업비로 3년간 15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의 자격이 주어진다.¹¹⁾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의 지원 내용은 유산자원의 발굴 및 정비, 보전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것으로 계획수립, 환경개선, 가치제고로 구분되며 내용은 아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주요 사업 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계획수립	기획설계	기본계획 수립비, 기초조사,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자원조사(유산/생물다양성/경관/문화 등), 전통자료 수집, 경관영향평가 등
	부지구입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개선	자원보호	자원 D/B 구축, 쓰레기 청소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 전통자원 품격화 및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가치향상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팜 파크, 농업유산전시관 등
	환경정비	경관 조성, 디자인 농업, 혐오 시설물 철거 등
가치제고	교육홍보	주민협의체 구축, 자원 및 전통기술 전승교육, BI개발 등
	가치창조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스토리텔링 등
	연계소득	테마 축제장, 소규모 특산물 전시장, 시식코너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의 시행은 사업계획서와 주민협의회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후 농식품부에서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통보한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산 자원에 대한

10)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고

11) 지정된 유산지역 중 최근 3년 내 유사한 사업(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의 창조적마을 만들기(경관·생태)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곳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됨(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5,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백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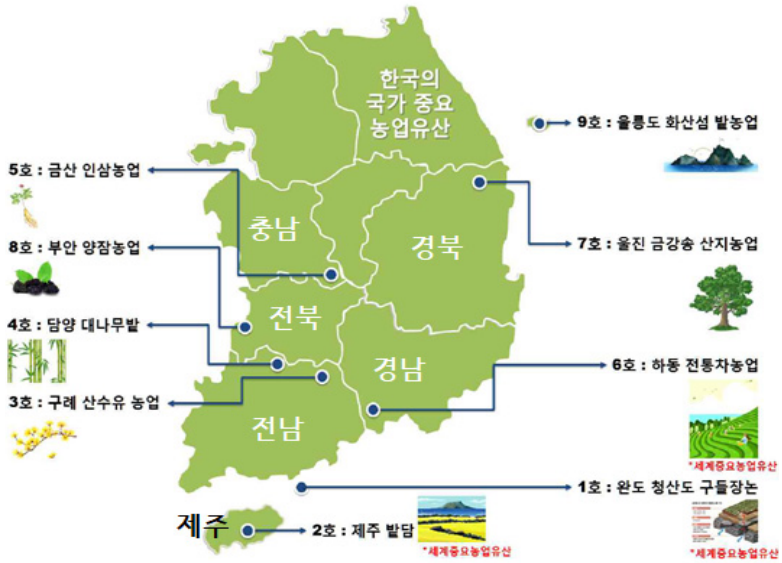
기초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다. 이후 분기별 사업추진실적과 자금 집행 상황보고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기간 내 예산 집행률 등의 사업진도로 성과를 측정한다.

- 기준 : ① 역사성과 지속성, ② 생계유지, ③ 고유한 농업기술, ④ 전통 농업문화, ⑤ 특별한 경관, ⑥ 생물다양성, ⑦ 주민참여
- 절차 : ① 지자체 신청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사항 자문(농업유산자문위원회) → ③ 현장조사 → ④ 최종 결정
- 지원 :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농업유산의 자원조사, 관리계획수립, 주민교육, 활용사업 등 지원

2.2.5 지정 현황

2012년 국가농업유산제도 추진 이후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 및 ‘제주 밭담’을 시작으로 총 9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었다(<그림 Ⅱ-6> 참조). 이후 2014년 ‘청산도 구들장 논’ 및 ‘제주 밭담’과 2017년 ‘하동 전통 차농업’, 2018년 ‘금산 인삼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이 3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북 2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경남 1개소, 제주 1개소가 소재해 있고, 강원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가장 많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선도적으로 ‘도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를 시행하여 2013년도에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 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구례 산수유 시목지’와 ‘담양 대나무 밭’이 2014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자료 : 정명철 외(2018), 다원적 가치의 바로미터, 농업유산, 인테러뱅, 농촌진흥청

<그림 II-6> 국가중요농업유산 분포 현황

<표 II-1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2018년 11월 현재)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특징
제1호 (2013)*	청산도 구들장 논	완도청산도 전역 (5.0ha)	· 급경사 지역에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해 논농업이 불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하여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논 조성
	제주 밭담	제주도 전역 (542ha, 22,108km)	· 돌과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돌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농업 생물다양성 증진,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제3호 (2014)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228ha)	· 생계 유지를 위해 집과 농경지 주변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하고, 다양한 생물 서식지 존재, 시비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제4호 (2014)	담양 대나무 밭	담양읍 삼다리 (56.2ha)	·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독특한 대나무 밭의 농업경관 형성, 죽초액과 대나무 숲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 및 토양 개량 등 전통농법
제5호 (2015)*	금산 인삼농업	금산군 일원 (297ha)	· 인삼재배의 최적지로 재배지 선정, 관리, 재배, 채굴,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의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
제6호 (2015)*	하동 전통 차농업	하동군 화계면 일대 (597.8ha)	· 생계 유지를 위해 1,200년간 전승된 전통적인 농업,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변의 산과 바위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제7호 (2016)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 (14,188ha)	· 왕실에서 황장봉산으로 지정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
제8호 (2017)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일대 (58.9ha)	· 뽕재배에서 누에 사육 등의 시스템이 보전·관리되고, 친환경적인 뽕나무 재배 및 생물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 밭의 우수한 경관
제9호 (2017)	울릉 화산섬 밭농업	울릉군 일대 (7,286ha)	· 급경사지 밭을 일구어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방지,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고, 울릉에 자생하는 식물을 재배하였으며, 산림과 해안이 조화되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2.3 시사점

일본과 중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은 초기부터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국가차원에서의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각각 2012년, 2017년으로 우리나라도 비교적 조기에 제도가 도입 되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은 농업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상품, 서비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과 시스템의 요소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중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 농업시스템에서 파생되는 농산품과 더불어 지역관습, 축제, 음식 등 모두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한 농산품의 부가가치화, 기업의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와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지키고 계승해 나감으로써 다원적 기능의 보전과 더불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성 미흡,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자발적으로 다양한 농업유산을 발굴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강원도는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도내에 사라져 가는 농업·농촌 내 유산적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보전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시작으로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과 농업유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국내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활용 사례

1. 전라남도 지정 중요농업유산 제도 사례

1.1 제도의 도입 배경

전라남도는 도시화와 소득 위주의 농촌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전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하고, 보전·전승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3년에 ‘도 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라남도는 제도 도입을 통해 도내에 산재해 있는 전통 농어업 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유산적 가치가 있는 자원 7개소를 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농어업유산 발굴·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지정된 사업비는 개소당 1,500만 원으로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원 정비와 주변 환경 개선, 홍보 및 자원화 컨설팅, 브랜드 개발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차원에서 발굴 및 지정·관리된 농어업 유산 자원을 상위제도인 국가·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미래 농촌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지정 기준 및 현황

전라남도 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은 당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지닌 유·무형의 자원 중 보전 및 전승할 만한 가치를 지닌 전통 농업활동과 농어촌 경관 등 모든 농업 산물을 중심으로 도 중요농업유산 지정이 가능도록 하고 있다. 아래 <표 Ⅲ-1>의 지정 기준을 근거로 도 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농업유산 자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지정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하였다.

<표 Ⅲ-1>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기준

구분	항목	내용
유산의 가치성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역사성 • 미래에 존속 가능하며,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이 있을 것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 경관(어메니티)이 수려하여 관광·휴양 상품성이 있을 것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분야에서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해당되는 1~2항목) - 식량 생산 및 주민 생계수단으로서 역할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보존·증진 - 농어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 - 농어업유산 관련 문화·의식 형성 - 현저하거나 아름다운 경관 및 수자원 관리 특징
파트너십	지방자치단체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와 보전·관리계획수립 등 정책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주민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전·관리협약 등 협력체계
효과성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지역의 전통적 농법의 결과로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자료 : 조창완(2014), 「도지정 중요농어업유산을 활용한 농어촌활성화 전략」, 전남발전연구원

2013년 12월 총 7개의 농업유산 자원이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농업유산은 제1호 구례 산수유 시목지, 제2호 보성 계단식 차밭, 제2호 담양 대나무 밭, 제4호 신안 갯벌·염전, 제5호 화순 다랭이논, 제6호 무안 회산백련지, 제7호 영광 염전이다. 이 중 2014년 구례 산수유 시목지와 담양 대나무 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2018년 보성 계단식 차밭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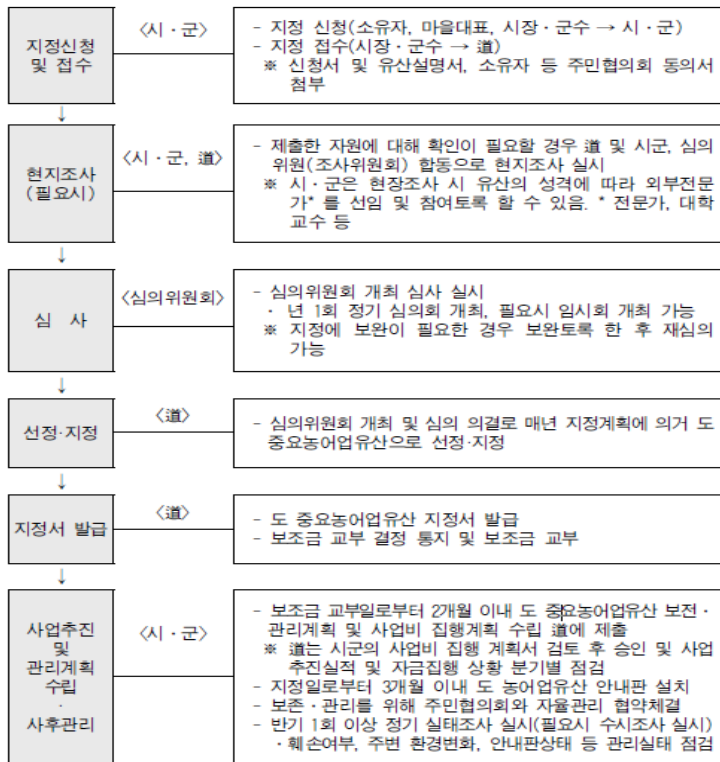


주) *가 표시된 농업유산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그림 Ⅲ-1〉 전라남도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 현황

1.3 신청 및 지정 절차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농어업유산 자원의 소유자나 마을대표, 시·군이 전라남도에 직접 지정 신청서 및 농업유산 설명서와 국가 및 도 중요농어업유산 신청 주민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자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시행하며, 도 중요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비를 교부 받아 농업유산 자원을 시·군 및 도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 : 조창완(2014), 「도지정 중요농어업유산을 활용한 농어촌활성화 전략」, 전남발전연구원

<그림 Ⅲ-2> 전라남도지정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체계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유산 관리 방안¹²⁾

2.1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등재 추진 배경 및 과정

제주도의 발달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농업유산으로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주도 발달의 유산적 가치는 2012년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제주도의 발달은 기능·특성상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지역주민은 흔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제주도민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유산으로서의 상속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오고, 공론화하였다. 이후 2012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1월에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64건의 농업유산 후보 중 ‘청산도 구들장 논’과 함께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연계사업인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의 사업비로 3년간 15억의 예산을 지원 받아 1차년도 사업비 5억을 활용하여 연구사업과 더불어 상위제도인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제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학계, 농업인 단체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013년 3월에 FAO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제안서 발표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제주발달의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 추진과정에 있어 제주도는 2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와 16회에 걸친 기획보도, 수차례의 기고문을 통해 제주 발달의 가치와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을 공론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 2013년 3월 8일 : ‘제주돌담밭’ 국가농업유산지정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발달』의 문화경관과 인문학적 가치
- 2013년 8월 26일 : 농업유산 보존·관리 및 연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

12) 제주연구원 제주발달기반구축사업단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2.2 농업유산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노력

2.2.1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농어업유산을 발굴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수립 및 신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연구기관의 설치 및 주민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 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농어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
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어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
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세계·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
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
12.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농업유산 지정 추진과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해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도지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유산위원회'를 두고 연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2.2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후 관리 및 활용 실태

제주도 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사례를 제주 발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발담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후 2013년부터 3년간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통해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3년간 총 15억의 예산을 지원 받아 1차년도에는 제주 발담의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사업, 심포지엄 개최와 등재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제주 발담이 2014년 4월 1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2·3차년도에는 제주발담의 가치제고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학술행사, 홍보사업과 더불어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3년간의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종료 후에도 제주 발담의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2015년에 지역발전위원회(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권 선도사업」에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발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산업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3년간 43억의 보조금을 받아 제주연구원 제주발담 기반구축 사업단을 중심으로 제주 발담 브랜드 개발 및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 발담의 BI(Brand Identity) 및 캐릭터 등을 만들어 제주발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개발된 BI와 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개발된 상품과 발담 주변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발담샵 등을 조성하여 6차산업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발담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 조직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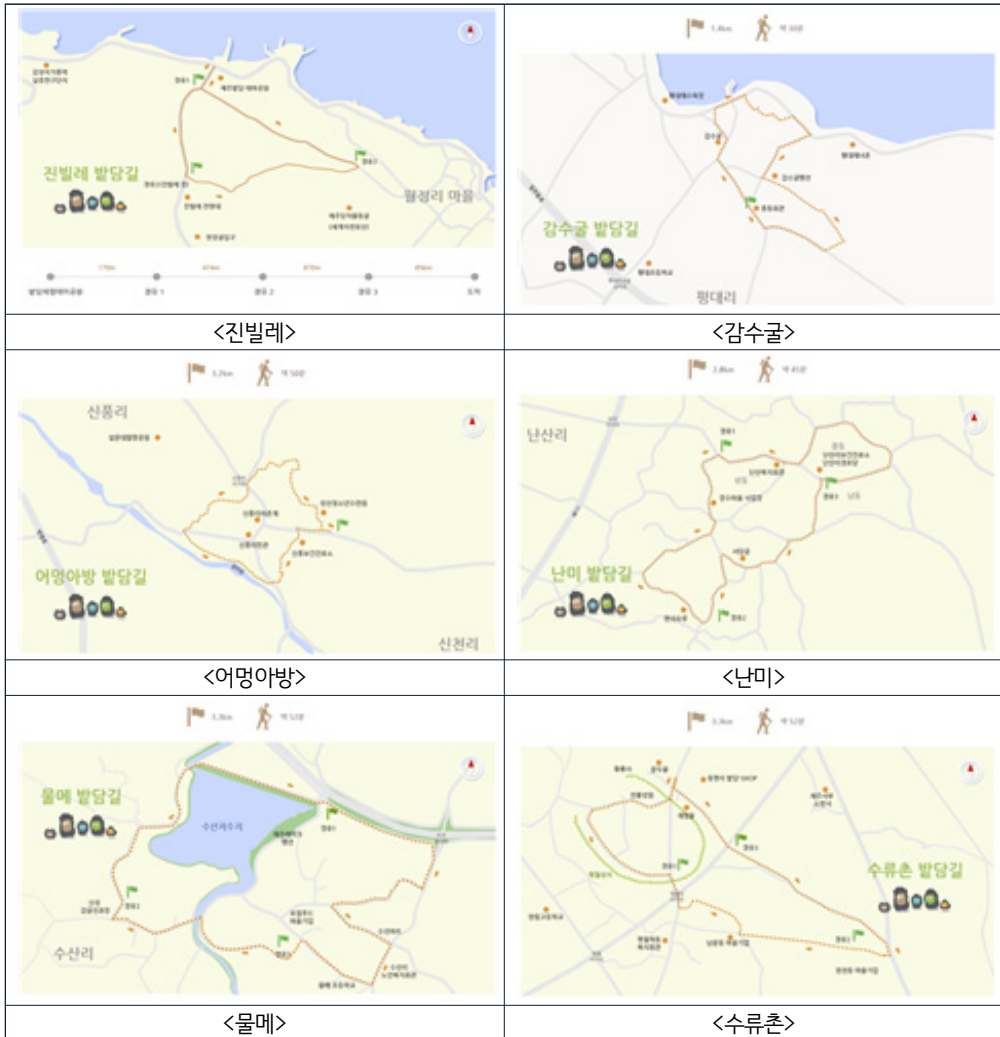
		
<p><제주밭담 액자></p>	<p><제주밭담 비누></p>	<p><제주밭담 농부 수첩, 달력 등></p>
		
<p><돌담 시계></p>	<p><제주밭담 엽서북 및 포스터></p>	<p><제주밭담 인테리어 소품></p>
		

자료 : 제주밭담기반구축사업단 홈페이지(<http://www.jejubatdam.com>)

<그림 Ⅲ-3> 제주밭담 관광기념품 디자인 상품

밭담길은 제주 밭담의 핵심권역인 제주 구좌읍의 진빌레 밭담길과 더불어 감수굴 밭담길, 난미 밭담길, 물메 밭담길, 수류촌 밭담길, 어멍아방 밭담길 등 총 6개가 구성되어 있다. 약 1시간 코스로 구성된 밭담길은 제주밭담과 농촌의 문화, 환경 체험을 통해 관광객의 밭담에 대한 이해 증진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지역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밭담길을 활용하여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 밭담길 걷기'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는 약 1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걷기 축제 개최 시 마을 주민이 직접 해설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마을의 부녀회 및 이장, 운영위원 등이 발담 축제 운영진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자료 : 제주발담기반구축사업단 홈페이지(<http://www.jeubatdam.com>)

<그림 Ⅲ-4> 제주 발담길 조성 현황



<그림 Ⅲ-5> 제주 물메 발담길 조성 현황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및 ‘생활권 선도사업’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보전관리 사업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농업유산인 제주 발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3 전문 인력 양성

제주 발담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제주발담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2016년부터 시작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상·하반기에 각각 진행되어 총 4회를 시행하여 약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제주 발담 아카데미는 약 2개월간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수업은 제주 발담 축조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 발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발담 우수지역의 현장견학, 발담 쌀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그림 Ⅲ-6> 참조). 또한 제주발담 아카데미 수료 후 기수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주 발담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 및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 례		강 좌 주 제	차 례(2017년)		강 좌 주 제
회 차	월 일		회 차	월 일	
1	4. 6(목)	○ 발담아카데미 설명 ○ 세계중요농업유산 - 제주발담의 가치	1	4. 6(목)	○ 발담아카데미 설명 ○ 세계중요농업유산 - 제주발담의 가치
2	4. 13(목)	○ 제주도의 지질 형성	2	4. 8(토)	○ 외담 쌀기
3	4. 20(목)	○ 조선시대 마정과 잣성	3	4. 15(토)	○ 외담 쌀기
4	4. 27(목)	○ 제주의 농·목축업과 발담	4	4. 22(토)	○ 답사
5	5. 4(목)	○ 제주의 산담과 석물	5	4. 29(토)	○ 겹담 쌀기
6	5. 11(목)	○ 제주민가와 돌담의 미학	6	5. 13(토)	○ 잣담, 잣굽담 쌀기
7	5. 18(목)	○ 제주의 방어유적과 환해장성	7	5. 20(토)	○ 답사
8	5. 25(목)	○ 제주정낭과 정보통신	8	5. 27(토)	○ 발담 정비
9	6. 1(목)	○ 제주 발담의 미적 가치	9	6. 10(토)	○ 발담 정비
10	6. 8(목)	○ 제주의 돌문화	10	6. 15(목)	○ 제주발담 총정리 및 수료식
11	6. 15(목)	○ 제주발담 총정리 및 수료식			
현장답사		○ 1차 : 4. 22 ~ 23(토, 일) ○ 2차 : 5. 20 ~ 21(토, 일)			
<이론 강좌 주제>			<실습 강좌 주제>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돌빛나예술학교(2017), 2017년도 제주발담 아카데미

<그림 Ⅲ-6> 제주 발담 아카데미 교육일정

3. 시사점

전라남도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유산의 보전 및 계승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농업유산 발굴 및 심의와 관련된 조례 제정과 지역차원에서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 이전부터 농업유산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준비해 온 결과 제도 도입 이래 1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활용해 농업유산의 브랜드화 및 관련 상품개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며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강원도도 지역차원에서의 농업유산 자원 발굴과 자원의 체계적인 유산적 가치 조사, 공론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의 농업유산 보전 및 계승의 중요성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차원의 제도 도입과 향후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

1.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강원도는 과거 인구의 88.5%¹³⁾가 농업취업 인구로 농업이 주산업이었으나 높은 산림비율과 한랭한 기후, 많은 적설량 등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으로 농업에 있어 많은 제약 요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 적응하며, 화전, 고랭지, 발농사 중심의 농업과 기후를 활용한 덕장 등 강원도만의 특수한 농업적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전운성, 2015). 또한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에 적응하기 위한 겨리농업과 같은 농업 방식도 발달해왔다.

이처럼 강원도 농업은 위협 요인에 적응하며 발전해 온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농업시스템이 존재하고 유산적 가치가 풍부하지만, 현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점차 농업 활동의 감소와 더불어 농촌에 존재하는 자원도 전반적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되어가고 있다. 타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유산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농촌주민 및 지자체의 저조한 관심과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13) 전운성(2015), 제3장 강원도의 농업, 「강원도사」; 조선총독부, 1910, 「제4차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농촌자원의 보전·계승·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농촌지역 주민이 지역 내 농경지, 경관, 무형적 요소를 소중한 자원으로서 재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산에 대해 문화재적 관점에서 농업유산의 특징인 활용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농업유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원도는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에는 충족되지 못하지만 보전가치가 존재하는 자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발견되지 못한 자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제시되는 중요농업유산 제도에 해당하는 자원보다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의 가치 있는 농업·농촌 자원을 보전함으로써 미래 농업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강원도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농업·농촌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자원과 더불어 현재에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농촌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원·계승함으로써 강원도 농업의 유산적 가치를 도모할 수 있다. 강원도 내 중요한 농업유산을 강원도에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전통적 농업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의 귀중한 자원을 보전하고, 더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강원도 농업유산의 기본 방향 및 유형 구분(안)

2.1 강원도 농업유산의 기본 방향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은 유산적 가치가 풍부함에도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유산 자원을 지역 차원에서 발굴·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로 하며, 기본요건으로는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의 기본적 틀에 따라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향토성 및 전통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도 계승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농업유산은 단일의 공간이나 시설만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례를 보면, 다양한 자원들의 조화를 전제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업유산의 지정 유형의 범위는 농촌에 존재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향후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시 도에서 발굴·보전된 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규모화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 농업유산은 ‘강원도에 존재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의 독특한 풍토와 지역주민의 지혜가 담긴 농업활동, 농업자원, 농촌자원 중 다음 세대에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고, 제도 도입으로 농업유산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향후 자원간의 연계로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2.2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유형 구분(안)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유형의 범위는 기존 농업유산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농업활동과 관련된 자원과 더불어 농촌생활, 농촌문화로 확대하여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포함하고자 한다. 유형 범위는 농촌자원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문헌 조사를 통해 정하고자 한다.

농업유산 관리 기준 제2호에 의하면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이란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식량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 제공,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생태계 유지, 국민정서의 순화, 보건휴양과 학습·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현하는 자원’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농촌 고유의 생태적·인본적·심리적·향토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 전원경관, 생산품, 역사문화, 공동체 등의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자원은 다원적 기능이 부각되며, 자연환경, 경관, 문화, 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기욱·장성근·강동진(2016)은 농촌자산을 농촌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 <표 IV-1>과 같이 농촌의 생산시스템을 지원하는 농경지, 자연환경, 농작물 등의 산출물을 포함하는 ‘농업기반형’, 농업활동과 농촌사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건축물, 구조물, 농업도구, 농업기술, 공동체 조직, 인

물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포함하는 ‘활동지원형’, 지역차원에서 각종 농촌서비스 활동과 전통문화와 관련된 자산을 포함하는 ‘생활문화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IV-1> 농촌자산의 개념 및 구성 체계

구분		내용
농업기반형	농경지	· 논/밭/산림/혼합
	자연환경	· 기후/지형/토양/산림 등
	농작물	· 곡류/채소류/기타
활동지원형	건축물	· 가공시설/저장시설/운송시설/판매시설/연구실험시설/정주시설
	구조물	· 자연하천 및 저수지/각종수리시설/기타구조물
	농업도구	· 기계류/기구류
	농업기술	· 재배기술/비배기술/저장기술
	공동체 조직	· 전통협업활동/농업문화활동
	인물	· 지역인재/농업인/기타
생활문화형	마을단위정주지	· 공동관리공간/생산지원공간/공동체지원시설
	지역단위정주지	· 복지시설/행정시설/교육시설/기타시설
	전통문화	· 의례 및 풍속/지명
	경관	· 마을경관/농업활동경관/기타경관

자료 : 정기욱·장성곤(2016), “농업유산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2016 춘계산학학술대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농촌진흥청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다움자원은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농촌다움이 있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 고건축물, 농촌경관, 농촌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 농촌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유산자원과 관련이 있으며, 농업유산을 농촌유산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유사하다.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다움자원의 분류체계는 아래

<표 IV-2>와 같다.

<표 IV-2> 농촌진흥청 농촌다움자원 분류체계

대분류(3개 항목)	중분류(10개 항목)	세분류(74개 항목)
자연적 자원	수자원	하천, 호수, 저수지, 약수터, 댐, 공동우물
	지형자원	바위, 절벽, 고개, 봉우리, 소, 담, 폭포, 계곡, 특이토양, 미기후발생지역, 동굴, 습지, 생물서식지
	식물자원	군락, 보호수, 노거수, 마을숲, 비보숲
	동물자원	어류, 곤충, 양서파충류, 포유류, 조류
문화적 자원	전통자원	전통적인 마을안길, 마을상징물, 전통신앙공간, 전통건조물, 전통주택, 풍수지리나 전설, 유명인물, 유적지나 터
	경관자원	농업경관,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주거지경관
사회적 자원	시설물자원	농업시설, 공동생활시설, 공공편익시설, 환경관리시설, 기반시설, 정보기반시설, 종교시설
	공동체자원	농업공동체활동, 마을문화활동, 생활공동체활동, 세시풍속놀이, 도농교류활동, 마을관리 및 홍보활동
	특산자원	친환경농법, 특용작물, 수공예품, 도자기, 특산식품, 섬유

자료 :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또한 농촌진흥청(2009)은 농촌 전통경관을 인간의 문화활동, 생활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문화경관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경관을 포함하는 범주로 물리적 구성요소에 따라 농촌생활공간, 농업생산공간, 자연환경공간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 IV-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속성으로 완결성, 집단성, 역사성, 전통성, 향토성을 지녀야 한다. 완결성은 형태적, 의미적 완결성의 가치가 인정되어 오랫동안 기본적인 틀이 변형되어 오지 않은 경관을 의미하며, 집단성은 생산, 주거, 풍류 등 인간의 문화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집단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한 것들이 모두 표출된 경관, 역사성은 인간이 거쳐 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 속에 함께하

는 물리적 구성요소의 집합체, 전통성은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각가지 상징군이 결합된 경관, 향토성은 일정한 지역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조상들이 생활하던 곳, 사람들이 생활공동체로서 의식을 갖는 지역사회 속에 형성된 경관을 의미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9).

<표 IV-3> 농촌 전통경관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성요소	내용
전체 경관	-	-	경관의 전체적인 모습	취락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괄하는 부분으로 주거경관, 생산경관, 녹지경관, 가로경관, 수변경관, 상징·신앙경관으로 나뉨
요소별 경관	농촌생활 공간	주거경관	초가집, 기와집, 가옥 주변, 가옥 내 사당 등	주거생활과 관련된 경관으로 가옥과 주변 경관이 포함됨
		가로경관	길, 담장(돌담, 흙담, 목책, 축책 등), 다리 등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역할로 유지·형성된 경관으로 길, 다리뿐만 아니라 길 주변 담장도 포함됨
		상징 및 신앙경관	장승, 솟대, 제실, 사당, 성황당, 충효비, 무덤경관 등	마을의 안녕, 풍요, 평화, 보호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형성된 상징적 경관
	농업생산 공간	생산경관	논, 밭, 과수원, 짚거리 등	농촌 내 생산 활동 범주에 속하는 농업과 관련된 경관을 논, 밭, 주변경관이 포함됨
	자연환경 공간	녹지경관	정자목, 정자, 원두막, 마을숲 등	휴식, 유희활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경관으로 숲, 녹지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관
		수변경관	빨래터, 시냇가, 우물가 등	전통생활 양식과 관련되어 유지된 경관으로 물의 사용과 관련되어 형성되는 경관

자료 : 농촌진흥청(2009), 농촌경관의 보전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

정명철 외(2014)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의 등재기준과 연계하여 농촌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농업유산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식량안정성, 생물다양성, 생업기술, 농업문화 및 사회제도, 경관관리 등 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이를 중분류 19개, 소분류 50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계승의 가능성 및 농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식량안정성의 농업용수 확보·관리 및

식량비축·교환, 생업기술 중 농업기술, 농업문화 및 사회제도 중 농업과 관련된 예능, 제도, 신앙 등이 농업유산자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표 IV-4> 농촌 무형유산의 범주 및 분류체계 설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식량안정성	농업용수 확보·관리	저수	둠방, 제방, 저수지, 양수장, 웅달샘 등의 축조·수축·유지·관리 방법
		관개	무늬기, 수문, 보, 도랑, 물꼬, 배수시설 등의 축조·수축 ·유지·관리 방법
	식량비축 교환	교환	식량의 배급, 판매, 유통, 출하, 교환, 수매, 공출 등의 방법과 제도
생업기술	농업	농사기술	파종, 이식, 육종, 육묘, 방제, 수확, 저장 등의 농사기술
		도구이용	삼, 낫, 쇠스랑, 팽이, 호미, 가래, 고무레, 지게, 쟁기, 씨래, 홀태, 풍구, 장군, 삼태기, 용두레, 달구지, 도리깨, 키, 체, 갈퀴, 명석 등의 제작 및 이용기술
농업문화 및 사회제도	예능	음악	농악, 노동요, 놀이요, 판소리, 의식요 등
		무용	탈춤, 태평무, 처용무, 살풀이춤 등
		놀이	농악놀이, 풍년놀이, 남사당놀이, 줄타기, 마당밧이, 줄다리기, 고싸움놀이, 차전놀이, 백중놀이, 들독놀이, 강강술래, 색유산놀이, 선유놀이 등
	제도	공동체규약	두레, 품앗이, 향약, 동계, 율력, 농계 등의 규약과 운영
		공동체조직	지역사회와 마을, 상조, 노동, 신앙 등의 공동체조직의 구성과 운영
	신앙	마을신앙	탐신제, 별신제, 거리제, 동제, 산신제, 기우제, 용왕제, 풍어제, 단오제 등
풍수신앙		집터, 못자리, 수구막이, 액막이, 돌탑, 솟대, 장승, 조산 등	

자료 : 정명철 외(2014), “농업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농촌무형유산 분류체계 연구”, 한국농업사학회, 「농업사연구」, 13(1)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의 유형은 기존 농업유산의 대상을 기초로 하되 농촌유산의 범위를 포함하여 확장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위의 농촌자산 및 무형유산 등의 검토를 통해 농업유산자원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대분류는 농업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농업생산형 유산,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지식체계가 포함되는 농업지원형 유산, 농촌생활과 관련된 농촌생활형 유산으로 구분하였다.

농업생산형 유산은 토지자원과 수자원으로 분류하여 정하였으며, 토지자원에는 논, 밭, 산림, 시목지 등 농촌 내 생산활동과 관련된 농업경관이 포함되며, 수자원은 보, 도랑, 물꼬, 수문, 둑방 등의 관개시설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수자원을 의미한다.

농업지원형 유산은 농업기술자원, 농업도구자원, 시설자원, 유전자원, 공동체자원으로 분류하였다. 농업기술자원은 육종이나 육묘, 수확, 저장, 화전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법, 다양한 작물 경작방식 등의 농업기술을, 농업제도는 식량 교환 및 유통, 출하 등의 방법과 제도를 포함한다. 시설자원은 통가리, 곳간, 저장동굴 등의 저장시설과 가공시설, 운송시설이 될 수 있으며, 고유 품종 및 희귀 품종의 유전자원과 마을 공동체 규약 및 조직이 지원형에 포함된다.

농촌생활형 유산은 신앙 및 풍속자원과 농촌생활공간 자원을 구분하고, 농업과 관련된 마을·풍수신앙과 주거경관, 가로경관, 신앙경관 등의 농촌의 전통경관과 녹지경관 및 수변경관의 자연환경공간 자원을 포함한다. 또한 농악, 노동요, 농악놀이, 풍년놀이 등 농업과 관련된 농촌문화 등을 포함하였다.

<표 IV-5>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유형 구분(안)

대분류	중분류	자원 예시
농업 생산형 유산	토지자원	· 논, 밭, 산림, 시목지 등 농촌 내 생산활동과 관련된 농업 경관 등
	수자원	· 관개시설(보, 도랑, 물꼬, 수문, 둠벙),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경관 등
농업 지원형 유산	농업기술자원	· 농사기술(파종, 이식 방제, 육종, 육묘, 수확, 저장, 친환경농법, 경작방식, 화전, 개답 등의 기술) 등 · 농업제도(식량의 교환, 배급, 판매, 유통, 출하, 수매, 공출 등의 방법과 제도) 등
	농업도구자원	· 농림업도구(쟁기, 가래, 씨래, 고무레, 홀태, 지게, 풍구, 쇠스랑, 장군, 도리깨, 멍석, 갈퀴 등의 제작 및 이용 기술) 등
	시설자원	· 저장시설(통가리, 곳간, 창고, 저장동굴, 지하저장고 등), 가공시설, 운송시설 등
	유전자원	· 고유(재래)품종, 희귀 품종 등
	공동체자원	· 공동체 규약(두레, 동계, 향약, 율력, 품앗이, 농계 등의 규약과 운영) 등 · 공동체 조직(지역사회와 마을, 노동, 신앙, 상조 등의 공동체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농촌 생활형 유산	신앙 및 풍속 자원	· 마을신앙(동신제, 산신제, 기우제, 거리제, 용왕제, 풍어제, 단오제 등) · 풍수신앙(집터, 수구막이, 액막이, 못자리, 돌탑, 솟대, 장승, 조산 등)
	농촌생활공간 자원	· 주거경관(초가집, 기와집, 가옥 주변, 가옥 내 사당 등) · 가로경관(길, 담장(돌담, 흙담, 모객, 주책 등)), 다리 등 · 상징 및 신앙경관(장승, 제실, 솟대, 사당, 성황당 등)
	자연환경공간 자원	· 녹지경관(정자목, 정자, 원두막, 마을숲 등 휴식, 유희활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경관 등) · 수변경관(빨래터, 시냇가, 우물가 등 전통생활 양식과 관련되어 유지된 경관으로 물의 사용과 관련되어 형성되는 경관 등)
	농촌문화	· 농악, 노동요, 농악놀이, 풍년놀이 등

2.3 강원도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안)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차원의 하위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과 유사한 기준 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은 등재 기준 모두를 만족할 시에만 등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시스템은 이미 완전체를 이루고 있는 유산 자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밭담,

구들장논 등은 이미 역사적으로나 경관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등재 기준 모두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농촌 지역에는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은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등재 기준을 토대로 하되 미래 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농업유산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강원도 농업유산으로서 지녀야 할 필수 조건은 아래 <표 IV-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농업유산의 핵심적 요소인 농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농업지원형 유산과 농촌의 생활·문화적 자원을 포함하는 농촌생활형 유산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은 농업 생산 경관 및 전통적 농업시스템이나 농업과 관련된 지역의 농업문화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농업유산 자원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농업유산의 계승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필수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승하고 있는 단체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외의 지정 기준으로 제시한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의 역사성, 지자체의 관심과 더불어 농업생산형 유산의 생계 및 식량 확보, 농업지원형 유산의 농업생물다양성 등은 선택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의 역사성은 강원도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난 역사성 배경을 의미한다. 즉, 역사성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강원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독특한 농업시스템 및 농업·농촌 자원의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계승 가치가 인정되면 강원도 농업유산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원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관심은 농업유산 자원이 소재한 지자체의 농업유산 자원의 지속가능을 위한 노력 또는 의지를 의미한다. 즉, 지자체의 자원 관리, 보존을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표 IV-6> 강원도 농업유산 지정 기준(안)

구분	항목	세부기준
농업 생산형 유산	농업경관 형성(필수)	- 전통적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경관 - 농업활동을 위한 수자원 관리 경관
	전통적 농업경관 전승(역사성)	-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난 역사적 배경 - 미래에 존속 가능하며,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
	생계 및 식량 확보	- 식량을 생산하거나 주민 생계수단으로서 역할
	지역주민 참여(필수)	- 자원 관리, 보존을 위한 농가, 지역주민의 참여
	지자체의 관심	- 자원 관리, 보존을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
농업 지원형 유산	전통적 농업시스템(필수)	-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전통적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
	전통적 농업시스템 전승(역사성)	-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난 역사적 배경 - 미래에 존속 가능하며,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
	농업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보존·증진 - 농업유전자 보존 및 친환경 농업 등
	지역주민 참여(필수)	- 자원 관리, 보존을 위한 농가, 지역주민의 참여
	지자체의 관심	- 자원 관리, 보존을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
농촌 생활형 유산	전통적 농업문화 및 경관 보유(필수)	- 전통 농업활동과 관련된 지역의 농업문화 - 농촌 생활과 관련된 경관
	전통적 농업문화 및 경관 전승(역사성)	-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것 - 미래에 존속 가능하며,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
	관련 단체(필수)	- 지역의 농업문화활동을 전승하고 있는 단체의 유무
	지자체의 관심	- 자원 관리, 보존을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

3.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 현황

위에서 제시한 강원도 농업유산의 유형 및 지정 기준을 바탕으로 강원도 내 농업유산 후보자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문헌조사와 강원도 및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예비조사의 경우 회신률이 저조하였다. 그 이유는 시군의 농업유산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된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자원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⁴⁾ 문헌조사는 도내 지정문화재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농촌다움자원, 기존 문헌의 강원도 농업유산 추천 자원 등을 통해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지정문화재 중 제3장에서 제시한 강원도 농업유산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원은 천연기념물 3개소, 국가무형문화재 2개소, 시도무형문화재 11개소, 시도기념물 3개소, 시도민속문화재 2개소로 총 21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정문화재 중 농업유산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원은 농업과 관련된 무형문화재와 생물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천연기념물 번식지 등이 존재하고 있다.

<표 IV-7> 강원도 지정문화재 중 농업유산 후보 자원(안)

구분	종목	명칭	소재지	수량/면적
1	천연기념물	철원철새도래지	철원군	-
2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횡성군	-
3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군락	강릉시	12주
4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강릉시	-
5		강릉단오제	강릉시	-
6	시도무형문화재	정선아리랑(아라리)	정선군	-
7		삼척기줄다리기	삼척시	-
8		강릉 학산오독떼기	강릉시	-
9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	양구군	-
10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강릉시	-
11		평창 둔전평농악	강원전역	-
12		원주매지농악	원주시	-
13		동해 망상농악	동해시	-
14		평창황병산사냥민속	평창군	-
15		속초도문농요	속초시	-
16		양양 상복골농요	양양군	-
17	시도기념물	춘천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춘천시	6,334㎡
18		홍천 동창보수로 및 압각명	홍천군	일원2,555㎡
19		평창 우통수	평창군	1개소
20	시도민속문화재	태백산석장승	태백시	2기
21		정선 백전리 물레방아	정선군	일곽

14)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자원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며,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촌다움자원 중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로 선정한 자원은 농촌 생산경관 11개소, 농촌자연경관(하천, 해안) 2개소, 농촌자연경관(산림경관) 6개소, 주거지 경관 4개소, 역사·문화경관 2개소로 총 27개소이다. 농촌다움자원 중 지정문화재와 중복되는 자원은 제외하였다. 도내 농촌생산경관 자원은 고랭지와 관련한 자원이 가장 많으며, 감자밭, 옥수수밭, 메밀밭, 다랑논 경관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자연경관은 산림경관 자원이 더욱 많으며, 고원지대의 경관이나 소나무 군락, 마을 숲 등의 자원이 있다.

<표 IV-8> 농촌진흥청 농촌다움자원 중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안)

구분	명칭(소재지)	특징
농촌 생산경관 (11)	고랭지 배추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산간마을로 특산물인 고랭지 배추 수확 경관
	유럽향기 (평창군 대관령면)	감자밭과 거대한 나무숲 배경의 경관
	풍요로운 농촌 (인제군 남북1리)	산촌마을 대규모의 오미자 밭과 고추밭, 옥수수 밭이 어우러진 경관
	대지의 모자이크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산지로 둘러싸인 전형적 산촌형 마을의 다랑논 경관
	녹색의 대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강원도 산세와 대규모 옥수수밭의 경관
	타오르는 해바라기 물결, 구와우 마을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구와우마을)	5만여 평 대지의 해바라기 경관
	각양각색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	옴폭파인 지형적 특색과 고랭지 채소밭의 경관
	산정의 평원, 강릉 안반덕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	산 정상 부근까지 넓게 펼쳐진 고랭지 배추밭, 감자 밭, 당근밭의 경관(계절별)
	장소의 변신, 서흥리 다랑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군용지 마을의 산비탈을 농토로 일군 다랑논 경관
	초록의 계절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1리)	석교리는 친환경 청정 농특산 생산마을로 친환경 오리농법 쌀과 청정 알로에, 찹옥수수가 유명
	메밀꽃 필 무렵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으로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가가 있는 효석문학마을 일대의 메밀밭 경관

구분	명칭(소재지)	특징
농촌 자연경관 (하천, 해안) (2)	비밀의 경관, 화천 양의대 (강원도 화천군 수상리~수하리)	하천과 산이 이루는 경관이 독특하고, 전반적으로 높고 험준한 산지 지형과 경관이루며, 양의대 주변의 습지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산양, 사향노루, 매, 삿, 담비, 새홀리기, 가는돌고래, 돌상어 등 야생동물 서식지로도 보호가치가 매우 큰 지역임
	흔들리는 다리, 섯다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섯다리는 물버들 나무를 거꾸로 박고 솔가지를 위에 씌운 뒤 흙을 덮어 만든 것으로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임시다리
농촌 자연경관 (산림경관) (6)	옥계마을 숲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2009년 복원된 전통마을 숲으로, 당산제(정월보름)를 지내던 곳
	천상의 무릉도원 (강원도 태백시 귀네미골)	해발 1,100m 고지 위 100만㎡(약 35만 평)에 이르는 능선과 비탈의 배추 생산 경관
	한계천의 소나무 군락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한계령에서 장수대까지 흐르는 한계천 내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로 주변에 돌제방을 쌓아 보호하고 있음
	능선이 아름다운 남양리의 산세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남양리)	우리나라 특유의 산지 형태를 나타내는 곳으로 주변에는 주로 소나무와 오래된 나무가 많음
	눈이 쌓이는 동네, 대관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해발 700~800m의 고원지대로 겨울 1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하늘 아래 첫 동네의 설경 (삼양목장, 양떼목장, 풍력발전단지, 용평스키장 등)
싱금숲*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 올미마을)	약 200년 전에 조성된 숲으로 방풍림, 경계림, 생태축의 기능을 하고 있음	
주거지 경관 (4)	연꽃마을 잔치 (강원도 화천군 서오지리)	1965년 춘천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되어 소류지로 변한 늪지대를 '자연스러움'을 전략으로 삼아 전국 각지에서 종자를 얻어 심어 연꽃단지 조성
	전원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1리 수령마을)	동남천과 기암절벽, 아리랑의 애환이 담긴 백이산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형성 되어 양전옥토(良田沃土)가 많아 농산물의 질 뛰어남
	편치불에 담긴 마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양구군 해안면의 해발 400~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마을을 둘러싼 그릇 모양의 산세가 아름다운 농촌마을
	다섯 가지 자연의 맛, 오미리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평화의 댐으로 향하는 길목 마지막 마을로 금강산에서 발원한 수입천이 마을을 휘돌아 가며, 친환경 향미(누룽지쌀)가 재배되고 있는 청정마을
역사·문화 경관 (2)	삼굿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전통재래방식으로 삼베의 원료인 대마를 켜내는 작업
	평창 눈꽃마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황병산 자락 해발 800m에 세워진 감자밭으로 둘러싸인 산촌생태체험장

주) *가 표시된 싱금숲은 농촌진흥청의 강원도 농촌생산공간 보전사례에서 참고
 자료 :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또한 선행된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로 제시된 자원은 고랭지 농업지역과 양구의 해안 분지 농업, 다랭이논, 황태덕장, 철새도래지, 거리농경문화, 동해 삼화지역의 보민속 등이 있다.¹⁵⁾

<표 IV-9> 선행연구의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안)

구분	지역	내용
고랭지 배추밭	정선, 태백	해발 700~900m의 완경사지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
안반데기	강릉	강릉 대기리의 고랭지를 활용한 배추밭
해안분지 농업	양구	양구 해안분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재배하는 시래기
밭구덕 고랭지농업	정선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이 있는 곳으로 돌리네를 활용한 배추 경작지
다랭이 논	삼척	산지의 계곡 및 구릉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단식 논
황태덕장	인제, 대관령	지형적 특성과 기후 특성을 활용한 황태덕장
철새도래지	철원	철새와 농업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
거리농경문화	영서북부지역	비탈지고 척박한 토질로 기계화가 어려운 밭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농경
홍월보와 삼화 보민속	동해	동해 홍월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논물대기를 위한 보 쌓기, 보(湫)놀이 등의 민속

자료 : 강종원·이영길(2015.3.24),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과 강원도”, 정책메모, 제448호; 장정룡(2015), “동해시 보민속의 전통과 민속적 가치”, 동해 삼화지역 홍월보와 보(湫)민속 고찰 심포지엄자료, 동해문화원; 이창식(2015), “동해시 삼화 보민속유산의 가치와 농업유산 등재”, 동해 삼화지역 홍월보와 보(湫)민속 고찰 심포지엄자료, 동해문화원.

강원도내 농업유산 후보 자원 중 중복된 자원을 제외한 총 39개소의 후보 자원이 도출되었다.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으로 영동지역의 고원지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고랭지 농업과 강릉시 석교리의 친환경 오리농법, 삼척시 다랑논, 양구 오미리 청정마을, 봉평 메밀밭, 삼굿, 해안분지 농업, 거리농경문화, 동해 삼화 보(湫)민속 등 유산적 가치가 발굴되어야 할 자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5) 고성어로요 및 황태덕장도 중요농어업유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농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어업유산 지정에 대한 후속연구에 포함되어야 함

이를 농업생산형 유산, 농업지원형 유산, 농촌생활형 유산 등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IV-10>과 같다. 농업생산형 유산은 토지자원 5개소, 수자원 4개소로 총 9개소가 소재해 있으며, 농업지원형 유산은 농업기술자원 2개소, 농업도구자원 2개소, 유전자원 7개소로 총 11개소, 농촌생활형 유산은 신앙 및 풍속 자원 1개소, 농촌생활공간자원 1개소, 자연환경공간자원 3개소로 총 14개소를 제시할 수 있다.

<표 IV-10>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유형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자원 예시
농업 생산형유산 (9개소)	토지자원 (5개소)	고랭지농업
		다량논
		봉평 메밀밭
		수령마을
	수자원 (4개소)	해안분지 농업
		홍천 동창보수로 및 암각명
		평창 우통수
		화천 양의대
농업 지원형 유산 (11개소)	농업기술자원 (2개소)	동해 흥월보와 삼화 보민속
		석교리 친환경 오리농법 양구 오미리 청정마을
	농업도구자원 (2개소)	정선 백전리 물레방아 거리농경문화
		유전자원 (7개소)

대분류	중분류	자원 예시
농촌 생활형 유산 (19개소)	신앙 및 풍속 자원(1개소)	태백산석장승
	농촌생활공간자원(1개소)	영월 섯다리
	자연환경공간자원(3개소)	옥계마을숲
		심금술숲
		화천 연꽃단지
	농촌문화(14개소)	강릉농악
		강릉단오제
		정선아리랑(아라리)
		삼척기줄다리기
		강릉 학산오독떼기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
		강릉 사천하평담교놀이
		평창 둔전평농악
		원주 매지농악
		동해 망상농악
		평창 황병산사냥민속
		속초도문농요
		양양 상복골농요
		삼굿

본 장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후보자원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포괄적인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강원도 내 소재해 있는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지정 기준에 따른 기초분석 실시로 계승 가치가 풍부한 자원의 경우 유산화를 위한 가치 발굴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시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통해 농업유산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보전·계승과 자원들간 연계를 통해 더욱 규모화된 농업유산 자원을 창출해내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자원화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V.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

1. 추진 방향

1.1 체계적인 농업·농촌 자원의 기초 조사 실시

농업유산 자원 발굴에 앞서 강원도 내 소재해 있는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도내에 보편적이고 익숙한 자원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향후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농업유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장에서 제시한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유형의 범주 아래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초조사는 먼저 지정문화재,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다움자원, 마을숲 현황 등 문헌조사와 더불어 도내 18개 시군의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아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목록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농업유산 자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1차로 분류된 자원을 시군별로 구분한 뒤 강원도 농업유산 지정 기준(안)에 따라 2차적으로 세부 분류를 실시한다. 이 때 특정한 시군에서 나타나는 자원이 아닌 여러 시군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원일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자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농업유산은 하나의 자원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지역 전체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때 더욱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유산 자원의 현황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남북 교류시 남북강원도 공동의 농업유산 추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도내 농업·농촌 자원 기초조사 등 자원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강원도 내 농업유산 자원의 가능성이 있는 농업·농촌 자원을 목록화 및 DB화하여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발굴을 해야 한다.

1.2 농업·농촌 자원의 유산화

발굴된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유산적 가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산적 가치 조사는 향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고려하여 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농업·농촌 자원의 역사성과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고유한 농업기술 및 기법,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적인 농업문화, 농업활동과 관련된 경관, 생물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치를 발굴하여야 한다. 자원별 유산적 가치 조사 및 발굴을 통해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자원이 제시되어야 한다. 후보자원이 제시되면 주민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유는 농업자원의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유산의 필요성과 자원의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주민 및 지자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유산과 관련하여 학술세미나 및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유산 후보지역에 해당하는 주민 및 공무원 등의 참여를 도모하고, 농업유산의 가치와 미래 세대로의 계승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여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주민의 경우 농업유산을 기존의 문화재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원형 보존 및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농업유산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과 이를 통한 소득창출 방안을 제시하여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3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통해 강원도 내 중요한 농업유산 자원을 강원도에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전통적 농업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전 단계에서 제시된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 중 보전 및 계승의 가치가 충분한 자원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강원도 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유산 지정과 관리, 지속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을 위해 타 지자체의 농업유산 관련 조례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강원도 농업유산 관련 조례에는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의 목적 및 적용범위와 지정에 대한 추진절차 및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강원도 농업유산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지사 소속의 ‘강원도 농업유산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정된 농업유산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강원도 농업유산의 관리주체 및 농업유산의 복원 및 수리 등 보전에 대한 사항과 농업유산을 활용한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에서 지정한 농업유산이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중요농업유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 소재한 농업유산 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전되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보전할만한 가치가 공감되어야 한다. 그 가치는 자원이 지닌 다원적 기능 보전이 될 수 있으며, 지역민이 농업유산 자원을 보전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유산 자원의 관광화, 브랜드화 등 활용에 따른 소득창출과 경관 보전에 따른 경관직불제 등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강원도 차원에서 지정한 농업유산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위제도인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차원에서 지정한 농업유산 자원가의 연계를 통해 규모화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강원도 농업유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TF팀은 강원도와 시군, 주민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제안서 작성 및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전문가는 농업유산 지정 기준에 맞추어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 약 10명 내외의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F팀 추진하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면 농식품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3년간 총 15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을 활용하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업유산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유산의 핵심지역은 보전하면서 농업유산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특산물 부가가치화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및 보전·활용

강원도 농업유산의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위해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등재를 통한 가치화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기의 절차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3차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TF팀 구성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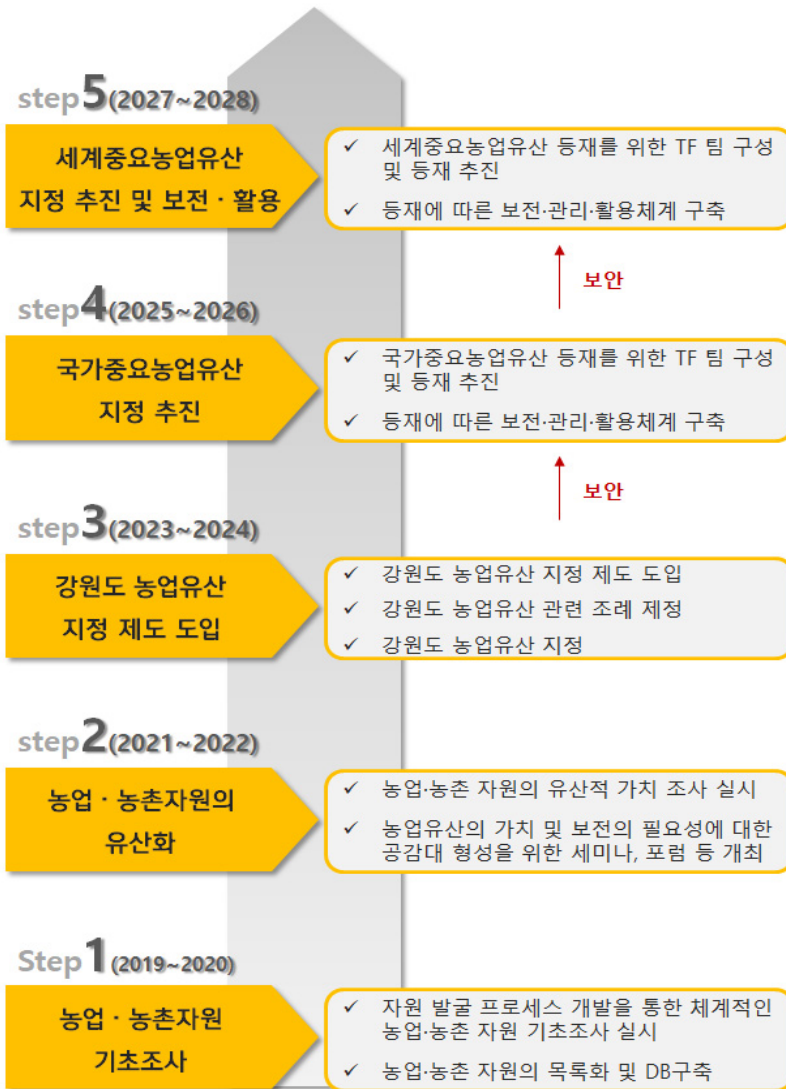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통해 3년간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사업기간이 종료되어도 강원도 농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농업유산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원도 농업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절차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농촌 자원의 기초조사, 가치 발굴을 통한 농업·농촌 자원의 유산화,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 및 지정,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최종 목표가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농업유산의 다원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 안정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농업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은 아래 <그림 V-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가치 있는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원의 유산 가치 발굴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수집 및 DB화와 유산적 가치가 발굴된 농업유산 후보 자원 목록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지역 차원에서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통해 농업유산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에서 지정한 농업유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여 상위제도인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도·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농업유산의 보전 및 계승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림 V-1> 강원도 농업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10년간)

V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요약 및 결론

농업유산은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으로 다원적 가치의 상징이며, 지속적으로 전승할 시 다원적 가치의 확산과 더불어 지역의 정체성 구현 및 농업유산의 활용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FAO는 이러한 농업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농업시스템을 지정하고 보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촌가치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특수한 지리적·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전해 온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농업자원이 풍부함에도 농업유산의 규제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의 부족 등으로 현재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전무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현대화로 농촌지역의 특성이 훼손되고 농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농업유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유산 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관리 및 보전을 통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계승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본 방향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농업유산 유형으로 농업 생산형 유산, 농업 지원형 유산, 농촌 생활형 유산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지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지정 기준은 국가·세계중요 농업유산의 기준을 토대로 하되 미래 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제시하였다. 강원도 농업유산의 필수 조건은 농업·농촌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농업유산 자원의 관리 및 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의 역사성과 지자체의 관심은 선택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농업유산 유형별로 농업생산형의 경우 생계 및 식량 확보를, 농업지원형 유산의 경우 농업생물다양성을 선택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생산형 유산 9개소, 농업지원형 유산 11개소, 농촌생활형 유산 19개소로 총 39개의 자원이 도출되었다.

강원도 농업유산으로 제시된 자원의 유산화와 지속적인 계승을 위해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적인 농업·농촌 자원의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도내에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향후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농업유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농업·농촌 자원 기초조사 등 자원 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강원도 내 농업유산 자원의 가능성이 있는 농업·농촌 자원을 목록화 및 DB화하여 체계적인 자원 관리 및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농촌 자원의 유산화를 위한 가치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발굴된 농업·농촌 자원에 대해 지정 기준에 따른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계승 가치가 있는 유산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강조되는 농업·농촌 자원의 역사성과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고유한 농업기술 및 기법,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적인 농업 문화, 농업활동과 관련된 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유산적 가치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안)’를 도입하여야 한다.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안)’ 도입을 통해 강원도 내 중요한 농업유산을 강원도에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전통적 농업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전 단계에서 제시된 강원도 농업유산 후보 자원 중 보전 및 계승의 가치가 충분한 자원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강원도 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강원도 차원에서 지정한 농업유산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위제도인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차원에서 지정한 농업유산 자원가의 연계를 통해 규모화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에 따라 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3년간 총 15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및 지속적인 보전·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등재를 통한 지역 브랜드화 등의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TF팀 구성을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시 농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농업유산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원도 농업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도내 존재하는 농업유산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보전, 계승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추진 방향 제시에 앞서 강원도 농업유산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유산 자원의 유형 분류와 지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강원도 전체의 농업유산 자원 현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실시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문헌조사를 통한 강원도 농업유산 자원에 대한 예비조사 및 유형 분류와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향후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추진 방향에서 제시된 강원도 내 농업·농촌 자원의 기초 조사에 대한 연구와 농업·농촌 자원의 유산화를 위한 가치 조사가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강원도 차원의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관련 보고서·논문 및 발표자료

- 강승진(2013), “중국·일본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록 사례와 제주의 시사점” 「JDI FOCUS」, 제168호.
- 강종원·이영길(2015.3.24.),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와 강원도”,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448호.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2),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5),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백서」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6),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기법 개발 연구」
- 농촌진흥청(2009), 농촌경관의 보전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
- 농촌진흥청(2013),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유산」.
- 문화재청(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 배민식(2014),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백승석(2016), “한국 농어업유산의 지역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4(0) : 66-76.
- 선우윤정(2018), “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10), 세계농업
- 유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 유학열 외(2017),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 충남연구원.
- 이민수 외(2015), 「전라북도 농업유산 발굴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이창식(2015), “동해시 삼화 보민속유산의 가치와 농업유산 등재”, 「동해 삼화지역 흥월보와 보(湫)민속 고찰 심포지엄자료」, 동해문화원.
- 장정룡(2015), “동해시 보민속의 전통과 민속적 가치”, 「동해 삼화지역 흥월보와 보(湫)민속 고찰 심포지엄자료」, 동해문화원.

- 정기욱·장성근(2016), “농업유산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2016 춘계산학학술대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정명철 외(2014), “농업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농촌무형유산 분류체계 연구”, 한국농업사학회, 「농업사연구」, 13(1).
- 정명철 외(2018), “다원적 가치의 바로미터, 농업유산”, 「인테러뱅」, 농촌진흥청.
- 전운성(2015), “제3장 강원도의 농업”, 「강원도사」.
- 제주발전연구원·돌빛나예술학교(2017), 「2017년도 제주밭담 아카데미」.
- 조창완(2014), 「도지정 중요농어업유산을 활용한 농어촌활성화 전략」, 전남발전연구원.
- Akira Nagata(2018.9.15.),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in China, Japan and Korea”, 「농업유산의 다원적 가치 활용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농촌진흥청
- FAO 한국협회(2018), 「세계농업유산 가이드북」

- 관련 보도자료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www.fao.org/giahs)
- 제주밭담기반구축사업단(<http://www.jejubatdam.com>)
- 현대해양 : 세계중요농업유산과 어업유산(2018.3.5.)

<부 록>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03.08.]

(제정) 2013-07-26 조례 제 1079호

(일부개정) 2015-10-06 조례 제 1417호

(일부개정) 2017-03-08 조례 제 181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 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유산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4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8.>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농어업유산의 날 및 세계유산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가농어업유산 이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유산의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0.6., 2017.3.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농어업유산지구 주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3.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제주자치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3조(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자료관리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농어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

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어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
 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세계·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
 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
 12.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5.10.6.]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농어업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 2015.10.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bstract

A Basic Research for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of Gangwon Province

Choi Won Sil

Agricultural heritage means tangible and intangible agricultural resources that have been formed for a long time while adapting to the environment, society and custom of a concerned region. If transmitted consistently, agricultural heritage can spread plural values and activate rural areas. In this respect,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troduced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in 2002 to designate and preserve globally valuable agricultur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transmission of agricultural heritage to future generations. In Korea, too, the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NIAHS) were introduced in 2012 to designate the agricultural resources worth preservation as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s and manage and use them systematically for the creation of values in rural areas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public.

Though Gangwon Province has rich agricultural resources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Gangwon Province that have developed in the special geography and environment of Gangwon Province, none of them have been designated as a nationally or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due to the image of regulation of agricultural heritage and lack of recognition. Little efforts are being made on this matter. At this point of time when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are disappearing and agricultural activities are reduced due to rapid modernization, it is necessary to inherit the plural values of agriculture by making efforts for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and managing and preserving agricultural heritage at the level of Gangwon Provi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sents the types of agricultural heritage in Gangwon Province and suggests the basic direction and the ways of implement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Gangwon Provinc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for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in Gangwon Province as follows.

Firstly, a systematic basic research of the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should be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value of the heritage of the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through basic research and transmit them to future generations as they can be unique resources of agricultural heritage that can represent Gangwon Provinc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ss for resources discovery including basic research of the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and make a DB of the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that can be designated as an agricultural heritage in Gangwon Province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and discovery of resources.

Secondly, value assessment should be done for the designation of the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as agricultural heritage. The discovered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a certain criteria for designation for the drawing of heritage resources worth inheritance. Each of the drawn heritage resources will be examined for the value of heritage in the aspects of the historicity of the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and livelihood of local residents, unique farming technology and skills, traditional farming culture connected with farming activities, the landscape related with farming activities, biodiversity, etc.

Thirdly, Gangwon Provinc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have to be introduced. By introducing 'Gangwon Provinc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it will become possible to preserve the plural values such as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ystem of the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landscape and biodiversity through designation and consistent management of the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s of Gangwon Province by Gangwon Province itself and activate rural area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through adequate utilization of the herit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Gangwon Province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to designate the agricultural heritages of Gangwon Province among the candidates of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of Gangwon Province recommended in the previous stage through examination according to their value of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and manage and use them systematically.

Fourthly, it is necessary to push ahead with the designation of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s. It is important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which is higher than the provincial level in order for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preservation and use of the agricultural heritages designated at the level of Gangwon Province. A TF team for the designation as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has to be pushed ahead for the utilization as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through scale-up by connection of the resources of agricultural heritage designated at the provincial level.

Fifthly, it is necessary to push ahead with the registration of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and preserve and use the resources consistently.

Once a heritage is designated as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it i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for the designation of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If a heritage is registered a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it will be taken care of by a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and the locality can be activated by using the locality as a brand and also a tourist attraction. Thu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 TF team for the registration of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after designation as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for the preparation of the application for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and frequent hosting of seminars, etc. for the spread of the value of the agricultural heritage of Gangwon Province.

강원학 연구보고 3

강원도 농업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A Basic Research for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of Gangwon Province

2018년 12월 일 인쇄

201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육동한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전화 : (033) 250-2980, 2983

URL : <http://www.gangwonstudies.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